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고전소설 수업 연구 방법

-『허생전』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이 연 순

이연순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8월 31일

주 심 문학박사 김 쾌 덕

위 원 문학박사 강 인 수

위 원 문학박사 고 순 희

목 차

Ⅰ. 서론 ····· 7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 7
2. 선행 연구 ····· 10
3. 연구 방법 ····· 13

Ⅱ. 고전소설 교육의 현실과 전망 ····· 15

1.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와 목표 ····· 15
2. 제 7차 교육과정의 구성과 문제점 ····· 17
   A. 구성의 指向點 ····· 17
   B. 교과서의 문제점 ····· 19
   C. 교과서의 단계별 편성과정과 비판 ····· 20
3. 고전소설 교육의 현실과 반성 ····· 22
4. 바람직한 고전소설 교육 방법 ····· 23

Ⅲ. 『허생전』 수업의 실제 ····· 26

1. 『허생전』의 단원구성과 교수-학습 절차 模型 ····· 26
2. 계획 단계 ····· 29
   A. 학습 지도안의 설계 ····· 29
   B. 차시별 수업의 개요 ····· 33
   C. 교수-학습 목표 설정 ····· 40
   D. 사전 지식의 학습 ····· 42
   E. 사전 지식의 진단 ····· 49

3. 지도 단계 ····· 51
A. 줄거리 잡기 ····· 51
B. 작품 구조의 의미 ····· 52
C. 인물의 형상화 ····· 55
D. 주제의 구현 ····· 63
E. 의식의 한계성 ····· 68
4. 평가 단계 ····· 70
5. 내면화 단계 ····· 74
A. 텍스트의 상호성 확대 ····· 75
B.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 78
C. 만화로 재구성하기 ····· 79
D. 독후감상문 쓰기 ····· 81

Ⅳ. 결론 ····· 84

※ 參考文獻 ····· 88

표 목 차

<표1> 고등학교 교과서(1차-7차 개정) 揭載 고전소설 ····· 20
<표2> 교수-학습 절차 모형 ····· 28
<표3> 단원 학습 계획 ····· 30
<표4> 학습자 중심의 협력 모둠 학습 ····· 31
<표5> 본시 교수-학습과정 안 ····· 32
<표6> 작품 속의 주요 사건들의 기록 ····· 34
<표7> 설화·판소리·판소리계 소설·신소설의 비교 ····· 44
<표8> 『홍길동전』과 『허생전』에 나타난 理想鄕의 모습 ····· 76
<표9> 「황홀한 고백」의 노래 가사 바꿈 ····· 79
<표10> 만화로 재구성한 단원의 내용 ····· 80

A Study on the Method of Teaching Classical Novel
- As the Focus of the 『Heo saeng jeon』

Yeon-Sun Lee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o far, we have never interested in reading classical literatures in the class of school, because we have the learners understood the ones as a cramming education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words or phrases instead of th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novel literature. So, The learners can understand and memorize the contents of the classical literatures but can't make an appreciation, criticism and cre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he realization of a desirable method in literature education. That can be realized, I think, when the leaners themselves only understand and appreciate literature text, the teachers lead them to study for themselves in the literature class.

In this study, I would show the right way how to improve the problems i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and look into the composi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7th education curriculum. I have used 『Heo saeng jeon』, which is given in high school text, in the class room in order to study 'the desirable classical literature class'.

I introduced 『Heo saeng jeon』 in the practical class through the 4 special steps, planning-direction-evaluation-internalization. In the planning step, I set up the goal of the teaching-learning and let the learners should be recognized previous knowledges. After getting the leaners comprehend and analyze of the contents through reading texts, I made them grasp the next plot for the advanced and ideal direction. This step could make the learners arrange and summarize the feelings ideas which is necessary to write their impression of a book. They also can understand the structure of cause and effect, organize the character, and embody the subject in the

mind.

Although Yeon Am criticized toadyism and insisted a practical nationalism and an expedition to conquer the north in his works. But he revealed a limit in actions and speakings, which were described into a dualism-property and level.

In evolution step, I have the learners understand the contents deeply by making an embodiment questions such as 'Doing for oneself' and 'Doing together' which are the important activities in the text. I also tried to give a significance by exchanging them into existence itself through internalization. Thus I make the learner criticize himself whether he could answer confidently to the questions in the side of the text mutual enlargement. Also I use the methods such as singing the words of song with exchanging each other and reforming cartoons. Those are effective studying methods which can give an originality and an unification. Through writing their impression of a book I help the learner get a good habit which he can read carefully works.

In conclusion, I insist that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of classical novels can be realized by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with modern novels through cultivating the power of understanding and an appreciative power about classical novel.

Ⅰ. 서 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국어과에서의 6차 교육과정은 '이해 중심의 내용 제시와 감상'을 지향점으로 삼아 문학교육도 이에 맞추어 지식전달 위주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졌다. 특히 창작 교육에 관한 영역이 문학에 제시되지 않고 고등학교 작문 영역에서만 제시하였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부터는 그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좀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문학적 분위기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문학영역의 軸을 문학의 수용과 창작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습자를 수동적인 감상자가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로 만들어야 한다. 학습자는 작자와 시대를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그것을 다시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습자가 주체적인 문학 활동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1)]

국어교육은 언어 교육을 기초로 하되 삶의 체험 교육, 가치관 교육, 인간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될 때 독자적 영역의 확보도 가능해진다.

문학은 언어를 매체로 하여 인간의 의식과 생활 감정 등을 표현한다. 그것은 체험을 표현하는 것이며, 삶의 외적 현실을 描寫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은 그것이 속한 시대와 사회를 벗어날 수 없다.

문학 가운데 소설은 가장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문학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소설은 인간의 삶을 진실되고 총체적으로 그려낸다. 우리

1)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국어, 교육부, 2001년 1월

는 소설을 통해 자신의 내적 체험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삶의 유형과 행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형을 발견하고 지식과 경험을 넓힐 수 있다. 그리하여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소설을 바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내적 체험의 세계를 확대하고 인생의 의미를 사색하며 미래의 指標를 찾도록 해야 한다.

고전문학도 역시 그것이 창작된 당시의 언어를 통해 당대인의 문학적 흐름이나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을 표현한다. 따라서 고전 문학이 아무리 시대를 뛰어넘는 문학적 진실의 보편성과 초월성을 담고 있다고 하여도 현대인의 시각에선 낯설다.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고전문학에 대한 몰이해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고전 문학이 오늘날로부터 역사적·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진 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 요구되는 많은 지식·정보들이 교육 활동을 압도하여 정작 중요한 목표인 문학 체험등이 위축되거나 증발해 버리는 것이다.

고전문학을 학습하는 의의는, 우리 先人들의 문학 세계를 把握하여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시대상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把握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다[2]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보다 높은 차원의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식을 통해 고전문학을 학습해야 한다.

오늘날 고전문학 교육은 새로운 문제에 直面하고 있다. 곧 기능주의 언어관을 중시하고 있는 국어과의 틀 안에서 국어능력 伸長을 위한 재료로서의 의미만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고전문학이 지닌 참다운 가치를 바탕으로 고전문학 교육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3]

---

2) 김혜경,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 연구」(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1), 7쪽

3) 이응백, 『국어과 교육』(능력개발사, 1975), 228쪽

인생의 모습을 폭넓게 수용하고 인생의 진실을 표현한다는 면에서 고전소설이 현대소설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문학수업 현장에서는 고전소설을 '고전문학'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습자들에게 소설 문학으로 이해·감상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지 않았다. 字句 해석을 통해 고전지식을 주입하는 문학 교육을 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이제는 문학수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는 문학수업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방식은, 문학사적 지식이나 문학이론을 중시하는 방향보다는 문학 텍스트의 독서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문학적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사 위주의 주입식 문학교육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토론식[4] 문학교육으로 그 방법이 전환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목적은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문학 텍스트를 읽고 이해·감상하도록 도와주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문학교육을 실제 문학 교수-학습 현장에서 실시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문학 교육의 한 방법을 실현'해 보려는 데에 있다. 물론 여기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끌어주는 안내자, 조력자의 입장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 이론인 '수용이론(Reception theory)'[5]과 기존의 문학연구 방법론(신비평-형식주의적 偏向과 역사적 偏向 등)[6]을 수용하면서도 실제의 학습현장에서 이루어

---

4) 교수-학습 현장에서는 '토의식, 대화식'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5) 문학연구 방법론적인 문학 이론의 하나로 텍스트 위주의 문학 연구 풍토를 '독자'중심의 문학이해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신비평에 대한 개념이다. 이제까지의 신비평(형식주의적, 역사적)의 한계와 矛盾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새로운 문학이론이다.

6) 수용이론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주로 형식적-심미적 문학 연구 방법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연구 방법은 '작가-텍스트-독자'라는 문학 현상 가운데 작가와 텍스트

지면 좋겠다고 생각한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것으로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창의력 伸長 교수-학습방법의 개발적 제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전소설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바람직한 고전소설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眞正한 고전소설 교육의 실제를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허생전』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燕巖 박지원이 소설 『허생전』은 제 5차 교육과정 개편 때에 새로 편성되어 제 6차 교육과정에서도 대표적인 고전으로 교육되어 왔으며, 이번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빠지지 않고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이는 『허생전』이 고전문학의 白眉라 일컬어질 정도로 국문학사적 가치와 더불어 학습자들에게 교육적 감화를 줄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선행 연구

고전소설 교육 전반에 걸친 지도이념이나 방법에 관한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허생전』에 대한 연구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고전소설 교육 관계와, 허생전에 대한 논문이나 저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옥정윤의 「허생전의 교육방법 연구」[7] , 정성란의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

중심적인 문학 연구 방법이다. 문학 텍스트의 자율성을 중요시하여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문학 연구의 이상적 목표를 절대적 객관성에 두었다. 그 결과 비평의 객관화와 과학화는 이루었으나, 문학 현상 중 독자를 排除함으로써 문학의 본질과 기능을 제대로 밝혔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7) 옥정윤, 「허생전의 교육방법 연구-수용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육연구」[8], 김혜향의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 연구」[9], 이상옥의 「허생전 연구」[10], 이경희의 「허생전 연구」[11] 서경아의 「창조적 발문을 통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12] , 류문정의 「허생전의 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13] 등이 있다.

먼저, 옥정윤은 「허생전의 교육방법 연구」에서 바람직한 문학교육은 학습자 스스로가 문학 텍스트를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고,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독서체험으로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인 수용이론을 적용하여 『허생전』수업의 교수-학습의 실제 절차 모형과 전개 과정을 제시하였다.

정성란의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연구」에서는 고전문학이 지닌 참다운 가치를 바탕으로 고전문학 교육의 위상은 확고히 다져져야 한다는 명제에서 시작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언어사용 능력 신장이라는 본질적인 면과 조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전소설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다. 바람직한 고전소설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眞正한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장은하의 「한국 고전문학 교육연구」에서는 중학교의 고전문학 교육이 교과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一線 교육 현장에서 어떻

---

8) 정성란, 「고등학교 고전 소설 교육연구」(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9) 김혜향,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0) 이상옥, 「허생전 연구」(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11) 이경희, 「허생전 연구」(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2) 서경아, 「창조적 跋文을 통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3) 류문정, 「허생전의 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게 지도되고 있는지, 高入選拔 시험에서 고전의 출제 빈도와 유형은 무엇인지, 또 학습자들의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설문 조사를 통해서 국어 교육의 일반적인 성격과 고전문학이 교육의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학습자들의 인지 발달과 정서에 부합되는 고전교육의 의의를 연구하였다.

김혜향의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연구」에서는 이론에 치우친 교육과정 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 기관이 만들어져야 하고 교과서 집필의 기준과 개발을 위한 연구가 未洽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과과정 속에 교과서 외의 작품들도 교과서와의 連繫性 속에서 다룸으로써 고전소설을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옥의 「허생전 연구」는 『허생전』이 지닌 근대 단편소설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 내용이다. 일반적인 문학연구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는 역사학적 접근방법의 限界를 지적하면서, 從前의 燕巖小說에 대한 연구가 역사학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설령 문학적 접근방법이 채용되었다 해도 등장인물과 구성 및 주제 등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논자는 올바른 문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허생전』을 분석하고, 그 작품이 지니고 있는 裏面的 사상을 抽出하여 이 작품의 근대소설적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경희의 「허생전 연구」는 『허생전』의 문학성을 정립하기 위해 소설 성립의 절대요소인 주제·구성·문체를 체계적으로 分析하고 검토하여 근대적 요소를 抽出하여 지금까지의 『허생전』 연구와 평가에서 疏外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허생전』 연구의 기본적 과제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서경아의 「창조적 발문을 통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에서는 문학교육이 지금껏 텍스트 자체에만 지나치게 偏重된 경향을 극복하려는 의미로 문학교육에서 작품을 보는 문학론을 재정립하였다. 『허생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와 업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허생전』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 疎忽히 다루어지고 있는 작품 감상의 중요한 통로인 인물유형 분석에 있어서 인물이 소설의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편으로 삼아, 『허생전』내의 인물들을 통한 창조적 발문들을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허생전』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하고자 하였다.

류문정의 「허생전의 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허생전』의 교육에서 다루어져야만 하는 내용 영역을 문학교육에 관한 일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작가론적 영역·반영론적 영역·작품론적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허생전』의 교육적 실태를 교육과정 측면, 평가 내용 측면, 학습자 반응 측면에서 검토하여 문제점들을 抽出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고전문학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문제점을 해부하고 그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나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실제 고전수업이 대부분 교사위주의 설명형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맛보기형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披瀝하고 있다. 모두 나름으로 새로운 지도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실제 수업에 적용되어 질 때 파생되는 시간의 문제나 질문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전소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현재 고등학교의 현장수업을 중심으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고심과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을 중심적인 논의 대상으로 한다. 종래에 교육

현장에서 행해졌던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점을 把握한 후 올바른 고전소설 교육의 참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개편된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서의 고전문학, 그 중에서도 고전소설의 구성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반성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고전소설 교육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인 『허생전』의 실제 수업을 통하여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참다운 문학으로서의 『허생전』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할 것이다. 기존의 문학수업은 텍스트 자체에만 지나치게 偏重된 경향을 보임으로써 그 서술방법이 抽象的이고 理論的이다.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주로 담아서 살아있는 생활의 경험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교육적 의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Ⅱ. 고전소설 교육의 현실과 전망

1.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와 목표

고전문학은 우리 先人들의 정신세계를 추상적 역사나 외형적인 문화유적에서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고 느끼게 해 준다. 또한 고전문학은 한국문학의 전통과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어와서 현대문학을 뒷받침해 주는 배경이며 바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옛날의 오래된 시가나 산문이 아니라 현대에도 읽히고, 감동을 주는 문학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고전소설은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읽는 이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산문 서사양식이다. 소설이 인생의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形象化한 문학 장르이며, 궁극적으로 언어의 의미 확대와 창조 능력을 통해 표현되는 예술이라고 할 때, 고전소설은 그 당대 인간의 삶과 구체적인 모습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다. 인생의 모습을 폭넓게 수용하고 인생의 진실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소설이 현재 우리의 삶을 담고 있다면 고전소설은 그 당시를 살아간 우리 조상들의 삶을 반영한다. 고전소설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고전이지만,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그때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현대소설'이었다.

또한, '고전'은 옛 책을 의미하지만 옛날에 쓰여진 것이라고 모두 고전은 아니다. 고전문학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주었고,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야 眞正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전소설'은 우리의 영원한 고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운영전』 등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고전소설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삶과 先人들의 가치관과 삶과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사상을 이어받음으로써 민족문학, 나아가 민족 문화의 전통을 현대에 새롭게 되살려 나갈 수 있다.

고전소설을 교육하는 목표를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전소설을 읽고 감상함으로써 작품에 제시된 가치관을 내면화시킨다. 이는 고전소설에 先人들의 정신세계와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살피고, 작품의 내면에 흐르는 가치관을 발견하여 현재의 삶에 수용되도록 함을 의미한다.

둘째, 고전소설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도록 한다. 고전소설의 이야기 구성과 문체, 표현 등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고, 나아가서는 마음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 『춘향전』, 『심청전』 등의 고전소설이 당시의 사회를 배경으로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이야기 구조와 표현들은 현대의 읽는 이에게 재미를 느끼게 한다.

셋째, 고전소설을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인간적 삶의 진실을 발견하게 한다. 고전소설은 현대와 시대는 달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점에서는 현대소설과 같다. 고전소설에서 先人들이 인생을 어떻게 보았으며 인생에서 眞正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시대를 초월한 삶의 진실성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우리 서사 문학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다. 흔히 '소설'이라고 하면 현대 소설을 생각하게 되고, 고전소설은 그저 재미있는 옛날이야기 정도로 인식하기 쉬운데,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모두 우리의 산문서사양식이 발전되어오던 과정 중의 한 형태임을 배우게 된다. 우리 역사상 각 시대마다

있어 온 산문서사양식들-삼국시대의 설화, 고려시대의 가전체, 고려 말과 조선 초의 몽유록 소설, 조선 초의 전기나 국문소설과 야담류, 조선 후기의 한문소설, 개화기의 신소설 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전된 형태가 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소설'의 형태가 되었다. 따라서 고전소설을 배움으로써 고전소설 자체의 학습만으로 그치지 않고 通時的으로 서사의 발전 양상을 이해하고 서사문학의 전통을 체계적으로 알게 한다.

2. 제 7차 교육과정의 구성과 문제점

A. 구성의 指向點

학교 교육에 있어서 문학교육이 중시되고 그것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은 문학이 인간교육의 한 분야로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문학 교육은 국어교육의 一環으로 시작된 이래, 그 중요성이 점차 중시되어 오고 있으며,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문학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영역을 이루게 되었다.[14]

6차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의 '문학' 영역에는 '능동적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 '창조적 체험확장', '창조적으로 수용', '개방적인 태도'등을 문학 텍스트의 이해와 감상의 실제에서 강조하고 있다. 「문학」 과목에서는 과목의 성격을 "고등학교 「문학」 과목은 문학에 대한 지식들을 교수-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문학 감상의 주체로서 성장해 가고, 올바른 민족 문화 창조에 寄與할 수 있는

14) 7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국어(상), (하)와 함께 문학, 독서, 작문, 국어생활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독립된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문학 교과서는 검인정으로서 그 종류에는 18종이나 있다.

능력과 자질을 키우는 데 그 교육적 의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작품과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 '작품의 해석과 평가에는 다양한 시각과 방법이 있음을 이해', '작품의 감상과 이해에는 작품의 세계와 수용자의 삶이 照應되는 과정임을 이해', '작품 세계를 비판적이고도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문학작품을 학생들 스스로 즐겨 읽고, 이해하고, 감상',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활동에 학생들 스스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적극적인 자세'등에서, 학습자 중심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교육방향을 指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문학」 과목 설계에서 문학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고자 한 노력의 痕迹이 보인다. 우선, 문학에 대해서는 작품과 작가중심 접근을 止揚하고 문학성과 독자중심의 접근방식을 취하였으며, 교육에 관해서도 학습자 과정의 활동중심 접근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화하는 문학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문학을 하나의 독립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매체 및 활동과 통합된 包括的 문화현상으로 보도록 하였다.[15] 다만, 6차와 달리 좀 더 발전된 것이 있다면 문학의 학습활동에 있어서 학습자의 개개인적 특성을 더 인정하고 창작교육이 특별히 재능을 부여받은 소수가 아닌 전체 학습자에게 골고루 적용될 수 있게 배려를 하고 있다. 청소년의 신세대적 趣向에 맞게 力動的인 구성으로 교과서 내용을 배치[16] 하여 다양한 그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학습의 장을 열었다.

---

15) 서경아, 앞의 논문, 3쪽

16)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하)에서는 이제까지의 6차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 본문 좌·우편에 낱말이나 어구의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6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비슷하지만 교과서 하단에 도움말이나 알아두기 장을 마련하여 간단한 작가소개 및 문학이론, 학습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본문 중간 중간에 학습활동을 혼자하기와 함께하기로 나누어서 금방 배운 내용을 점검·換氣시키고 정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배려하였다. 본문 다음의 단원의 마무리를 통해 혼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하기에서 비판적 안목으로 작품을 감상할

B. 교과서의 문제점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중심, 활동중심의 국어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학생의 趣向에 맞추어 새롭게 편집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마련해 놓은 새 교과서들은 이전의 이론과 지식 중심주의, 교과서 중심주의 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것이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혹은 학생의 사고와 정서 '활동'을 발전시켜서 성숙되고 뜻 깊은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목표 달성에 충실하게 이바지하기까지는 相當한 시간이 걸릴 듯하다.

지적할 수 있는 교과서의 문제점은 우선,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단계화가 未洽해 보인다. '활동중심의 교육'을 위한 언어활동 자체에 대한 연구 역시 충분치 않다. 학습활동과 학생이 수준은 물론 학습 목표 및 자료의 특성과 맞지 않은 듯하다. 교육내용과 방법을 (어떤 지식체계나 갈래 위주가 아니라) 통합적이고 초갈래적인 언어능력 및 그것의 단계 위주로 조직하고자 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빈약했다면 이전보다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교과서대로 하자니 무엇을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模糊하고, 그렇다고 지식 위주로 교과서를 다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7차 교과서는 문학지식 위주의 편성을 하고 있다. 문학이 삶의 계기적인 재료로 작용해야 함은 문학교육에서 중요하다. 특히 고전문학의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창조적인 發想을 위한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에서도 혼자하기와 함께하기의 학습활동을 통해서 관련되는 다른 작품의 감상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기에서 사실감과 현장감이 묻어나는 천연색 사진으로 학습의욕을 鼓吹시키고 있으며 학습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도 揭載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정보검색을 통한 자발적이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경우, 그것이 동시대의 삶을 다룬 현대문학과는 異質的이기에 거기서 삶의 문제를 끄집어내어 현실의 유용한 것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편제는 삶의 인식론적 수준에 맞춰 감상의 단계로 재구성되어 져야 한다.

C. 교과서의 단계별 편성과정과 비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1차에서 7차까지의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揭載 고전소설의 편성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 고등학교 교과서(1차~7차 개정) 揭載 고전소설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홍길동전	우리의 고전문학 (고·2)	고전산문의 의미 (고·2)	고전의 세계 (고·2)	소 설 (고·1)			
구운몽				소설 (고·2)		문학의 즐거움 (고·상)	능동적인 의사소통 (고·상)
춘향전	우리의 고전문학 (고·3)	고전문학의 감상 (고·3)	고전의 세계 (고·3)	소 설 (고·3)	노래와 삶 (고·하)	작가·작품·독자 (고·상)	전통과 창조 (고·하)

홍부전						언어와 문학 (고 · 하)	
토끼전	우리의 고전문학 (고 · 1)	고전문학의 이해 (고 · 1)	고전의 세계 (고 · 1)				
허생전					소설과 사회 (고 · 상)	문학과 현실 (고 · 상)	정보의 조직과 활용 (고 · 하)

먼저, 자기실현을 위한 투쟁을 보여주고 있는 『홍길동전』은 1차 개정에서 4차 개정까지 꾸준히 揭載되었지만 5차부터는 揭載되지 않았고, 『홍부전』과 『토끼전』도 비슷한 빈도로 7차 개정 때까지 그 揭載가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주제 정신이 오늘날의 비판적이고 개성적인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진 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에 반해서 신분해방의 의지와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춘향전』은 계속해서 1차에서부터 7차까지 여전히 揭載되는 바, 아마도 이것은 시대를 莫論하는 보편적이고 恒久的인 여성해방론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弱者로서 존재해 온 여성의 지위상승에 따른 바람과 의지를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고자 하는 편성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생각으로 정리된다.

한편, 『구운몽』과 『허생전』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차에서부터 3 · 4차 개정 때까지는 揭載되지 않다가 그 이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 또한 刻薄하고 메마른 현실 속에서 자기의 이상과 꿈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정서와 그 脈絡을 같이 하고 있으며 시대를 초

월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계별 편성의도가 누구라도 수긍하고 이해가 된다는 느낌이 결코 들지 않는 이유는 우선 고전소설의 揭載 편수와 작품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그런 것들조차도 그 분량상 전편을 다 揭載할 수 없는 한계가 온전한 텍스트 읽기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작품에 대한 감상과 이해 더 나아가 해석과 비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 제대로 된 고전소설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든다.

3. 고전소설 교육의 현실과 반성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고유의 영역을 부여받아서 문학교육 연구는 세분화되어 발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문학, 더 나아가 고전소설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연구는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문학이라는 큰 範疇 속에 고전과 현대를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대체로 현대문학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현대문학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학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고전소설 교육은 訓詁註釋에 치우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학습자의 수용과 활동 측면은 소홀히 되고 있다. 즉, 수용자의 이해와 암기만이 있을 뿐 소설작품의 감상·비판·창조의 길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화유산에 담겨진 사상과 정서들이 오늘날의 우리와 역사적으로 連繫되어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교육하거나 그 현대적 가치 구현을 의도할 때 隨伴되는 諸般 여건이 급속하게 달라짐에 따라, 역사적 시·공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乖離感이 드는 것은 오늘날의 고전소설 교육의 새로운 局面을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그런 이유로 나날이 새롭게

변하는 문명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이 고전소설 작품에 형상화되어 있는 묘미와 정취를 제대로 감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이나 정서를 蓋然性과 함께 특별하게 부연 설명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생활양식이나 삶의 전반적 여건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학교에서 정규 교과과정으로 학습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제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들게 된다. 고전은 오늘의 삶과 문화의 뿌리이자 새로운 전통 창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영원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전소설 교육은 우리 고유의 문학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 발견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습자가 고전문학적 지식을 익히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왔다. 그러한 점들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고전소설 교육을 암기위주의 固着化된 지식과 언어면의 明哲한 註釋에만 얽매이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고전소설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습태도로 감상하게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놓쳐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4. 바람직한 고전소설 교육 방법

고전소설 교육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이 고전소설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작품을 직접 읽어보고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고전소설 교육방법을 몇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작품은 각 방면의 권위 있는 사람들로 인적 구성을 하여서 어느 특정 분야의 작품만이 아닌 다양한 주제와 장르,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게 한다.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작품을 發掘해 내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수록되어 져야 한다. 또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指向하는 작품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즉, 고전소설 작품을 보다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업시간에 배우는 작품 외에 다른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부교재를 제작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 개개인이 스스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책이나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해 관련되는 작품이나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조사해서 감상해 볼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다음 수업시간에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셋째, 반드시 학습자들이 그 작품의 사회적·사상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편소설의 경우 紙面上 그 내용을 교과서에 다 수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揭載를 하는 경우가 있다.[17] 물론 중요한 줄거리를 미리 제시해 놓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감상이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미리 그 작품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작품을 총체적으로 감상하게 한다. 특히, 고전소설의 경우는 현대소설과 달리 그 시대적 특성과 가치관 및 생활규범이 많이 다른 관계로 사전지식의 학습이 제시되지 못하면 학습자들이 정작 교과서에 揭載된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넷째, 대학수능시험의 고전소설 출제 경향을 개선해야 한다. 고전소설 교육에서 어학적인 면과 문학적인 면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으로 인해

---

17) 5차와 6차와는 달리 실제로 제 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하)에서는 전체적 문학작품을 싣기 위한 노력의 증거로 「허생전」, 「어느날 심장이 말했다.」,「눈길」, 「관동별곡」, 「산정무한」등의 작품이 있다. 다만 「춘향전」의 경우는 판소리라는 장르의 특징상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뒤얽힌 사건과 갈등이 해결되는 끝부분만 싣고 있다.

문학교육으로서의 고전소설 교육에 어려움이 많다. 어학적인 면이 작품감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疏忽히 다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이고 단편적인 지식 평가에 치우친 대학 입시 경향으로 인해 訓詁註釋的인 교육에 머무르고, 문학교육으로서의 측면이 다소 약화되었던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교육 실천에서의 대학입시의 영향이 대단한 만큼 그것이 바뀌지 않고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眞正한 인간의 모습과 삶의 진실을 발견한 후에 자연스럽게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를 미리 제시하지 말고, 작품을 감상한 후에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고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고전소설이 단순히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서사양식의 하나라는 사실과 그 문학사적 의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설화, 가전체, 전기 등의 문학적 흐름을 이해하는 가운데 고전소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Ⅲ. 『허생전』 수업의 실제

1. 『허생전』의 단원구성과 교수학습 절차 模型

『허생전』은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국어 (하)권의 2단원 정보의 조직과 활용에 두 번째 소단원으로 配置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은 대단원과 連繫하여 첫 번째 소단원은 개념·지식·원리를 이해하는 단원이고, 두 번째 소단원은 첫 단원에 배운 것들을 적용하고 활용해 보는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허생전』은 2단원인 정보의 조직과 활용 단원에서 첫 단원에 배운 개념과 원리를 적용해 보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단원 :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학습목표 ① 다양한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② 다양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재조직하며 듣고 읽는다.

③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재조직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소단원 (1) 다매체 시대의 언어 활동

학습목표 ④ 다양한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⑤ 다양한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재구성하여 듣고 읽을 수 있다.

소단원 (2) 허생전

학습목표 ⑥ 문학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⑦ 문학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의 구체적 의미와 普편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⑧ 작가의 상황과 관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위는 『허생전』이 실려 있는 단원의 구성과 학습목표이다. 우선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①②는 소단원 (1)과 관련한 학습목표로 정보화시대의 다양한 매체의 종류와 그 특성을 알고, 그 매체로부터 정보의 선택과 재구성을 실제로 활동해 보는 대단원의 기본적인 원리 학습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문 읽기, 텔레비전 광고보기, 인터넷 읽기 등 매체의 특성을 알고, 그들의 전달방식을 이해하며, 그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를 선택·분류·활용하는 활동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대단원의 학습목표 ③은 소단원 (2) 허생전과 관련된 것으로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찾아내고 이를 재조직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으로 소단원 (1)에서 배운 정보의 조직과 활용에 대한 방법을 개념에만 그치지 말고, 문학 작품에 직접 적용해 보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하는 능동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소단원 (2)인 허생전이 대단원과 연결이 되기는 하나, 소단원 (1)에서 대중 매체인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하다 어떤 설명이나 連繫 없이 고전 소설 안에서의 정보를 찾고 재조직하려는 것은 갑자기 학습의 範圍를 확장시킨 것이라 생각한다. 소단원 (1)에서 매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외에도 대표적인 인쇄매체인 책과 문학작품도 언급해 주어야 학습자들이 소단원 (2)를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허생전』의 학습목표를 문학 교육적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⑥⑦은 반영론적 관점, ⑧은 작가론적 관점으로써 작품론적 관점이 빠져 있다. 이 대단원의 주요 목적이 작품속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把握하고, 재조직하는 것이라서 작가론적 관점과 반영론적 관점이 浮刻되고 있지만, 작품론적 관점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작품론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은 구성, 주제, 인물 등으로써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는 『허생전』을 '정보의 조직과 활용'이라는 새로운 단원에 맞추어 적절히 학습하기 위하여 이전처럼 단순히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나 작가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이 아니라, 『허생전』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학습자 스스로 찾아내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의 배경이나 인물의 성격, 행동이 가지는 의미 등을 推理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다른 참고 자료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작품이 창작 배경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작품 이해를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직접 과제로 내주어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더욱 활발히 이끌어 낼 수 있다.

교수-학습 절차 모형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계획→진단→지도→발전→평가」모형을 근거로 하여 「계획→진단→평가→내면화」의 4단계를 적용하고자 한다.

〈표 2〉 교수 -학습 절차 模型

계 획	1. 학습지도안의 설계 2. 교수-학습목표 설정 3. 사전지식의 학습 4. 사전지식의 진단

지 도	1. 줄거리 잡기 2. 작품 구조의 의미 3. 인물의 형상화 4. 주제의 구현 5. 의식의 한계성
평 가	제 7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하) 의 학습 활동
내면화	1. 텍스트의 상호성 확대 2.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3. 만화로 재구성하기 4. 독후감상문 쓰기

2. 계획 단계

A. 학습 지도안의 설계

이 단원은 다양한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와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재조직하여 듣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伸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신문, 광고,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예로 하여 매체의 특성과 매체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고 아울러 정보를 재조직하며 듣고 읽는 방법을 알고 그러한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단원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 다양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재조직하며 듣고 읽는다.
-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1) 단원 학습 계획(총 8차시)

위의 목표에 맞추어 학습계획을 총 8차시로 나누어 설계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 단원 학습 계획

차시	학습할 부분	주요 내용 및 활동
1	. 단원의 길잡이 . 준비 학습	. 학습 목표 및 주요 활동 개관 . 만화를 통해 삶의 모습 推理하기 . 만화를 그린 사람의 의도 把握하기
2	(1) 다매체 시대의 언어활동	. 매체 언어의 특성 . 매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 재구성하기와 활용하기 . 매체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3-6	(2) 허생전	. 문학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문학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의 구체적 의미와 보편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작가의 상황과 관점을 고려하여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7	. 단원의 마무리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학습 성과 정리하기
8	. 보충 학습	. 매체 언어의 특성 재확인하기 . 매체의 정보전달 방식의 특징을 고려한 매체 읽기
	. 심화 학습	.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정보 재구성하기 .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의 의미 감상하기

지도상의 유의할 점으로는

.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재조직하여 활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수-학습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 언어의 특성과 각 매체의 정보전달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쓰기나 말하기와 같은 실제의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정보를 재조직하여 활용하는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이 되도록 한다. 개념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말고,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매체 언어와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정보를 재조직하여 듣고 읽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적용 학습모형은 학습자 중심의 협력 모둠 학습으로 하였다.

〈표 4〉 학습자 중심의 협력 모둠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내용	시간	준비물·유의점
문제 把握	동기 誘發	. 선수학습 내용 확인하기 . 학습 문제 발견하기 . 과제 분석, 목표 및 계획 수립 . 학습약속-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법제시	6 시간	.전체 학습
문제 추구 해결	문제 인식 기본 학습	. 기본 내용을 공통으로 배우는 과정 . 계획에 따라 학습 활동하기 . 학습 방법 및 과제 해결 방법 논의	6 시간	. 개별 학습 . 모둠 학습 . 협력 학습
	평가	. 기본 학습 성취도 확인-평가 형성 . 심화·보충 학습 방법 논의 결정-과제 선택, 과제 해결 방법 논의		. 기본 학습 달성 정도 점검(과정평가)
발전	심화·보충 학습 선택 학습	. 심화 학습 : 기본 과정을 성취한 학생들의 심화 과제 수행(학습자 중심 활동) . 심화 과정 履修시 선택 자율 학습 과정 . 보충학습 : 기본 과정 미달 때 더 쉬운 내용을 배우는 과정(교사의 집중 지도)	2 시간	. 심화형 과제(기본 학습 내용 . 보충형 과제(다양하고 흥미로운 과제제시)의 심화
정리	정리와 수업 반성	. 학습 활동 반성하기 . 학습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 . 가정학습 과제 제시-능력별 과제		. 전체 학습 . 과제 해결 방법 토의

2)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 『허생전』의 수업은 단원의 구성상 <3차시>부터 <6차시>까지가 본시학습에 해당된다.

<표 5>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table>
<tr><td>소단원명</td><td colspan="4">(2) 허 생 전</td><td>차시</td><td>3~6/8</td></tr>
<tr><td>학습목표</td><td colspan="6">. 문학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의 구체적 의미와 보편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작가의 상황과 관점을 고려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td></tr>
<tr><td>학습
흐름</td><td colspan="5">교수 - 학습 내용</td><td>자료 및 유의점</td></tr>
<tr><td>도입
전개

정리</td><td colspan="5">▶ 전시 학습의 換氣 (각 차시별 적용)
▶ 교수-학습목표 설정, 소단원 개관(각 차시별 적용)
▶ 본시 학습 목표 제시(각 차시별 적용)
▶ 본시 교수-학습 내용 제시(각 차시별 적용)
▶ 학습 동기 및 흥미 誘發(각 차시별 적용)
▶ 작품 읽기(각 차시별 적용)
▶ 사전지식의 학습 및 진단(3차시)①
▶ 줄거리 잡기(3차시)②
▶ 작품 구조의 의미(3차시)③
▶ 인물구성의 형상화(4차시)④
▶ 주제의 구현(4차시)⑤
▶ 의식의 한계성(4차시)⑥
▶ 학습 내용 종합 정리 및 평가(5차시)⑦
▶ 내면화 단계(5~6차시)⑧
▶ 과제 및 차시 예고</td><td>[프리젠테이션 자료]

[평가지]
[스캐너, OHP]
[과제학습]</td></tr>
<tr><td>설명
하기</td><td>시범
보이기</td><td>질문 하기</td><td colspan="3">활 동 하 기
개별학습 / 모둠학습 / 협동학습</td><td>과제 학습</td></tr>
<tr><td>① ③ ④ ⑥</td><td>②⑥</td><td>③④⑤⑧</td><td>①④⑤⑦</td><td>②⑤⑥⑧</td><td>③⑦⑧</td><td>①②⑤⑥⑧</td></tr>
</table>

B. 차시별 수업의 개요(3차시~6차시)

차시별 수업내용에서는 <3차시>만 각 단계별(도입-전개-정리)로 수업을 펼치고 <4차시>부터는 전개부분만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3차시 수업

(1) 도입

① 전시학습 換氣 : 정보의 전달방식, 정보의 재조직 및 활용방법

② 교수-학습 목표 설정

③ 소단원 개관

· 제재의 성격 :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재조직하여 감상하는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 문학 작품은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을 변형하여 반영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단원 개관

· 제재 학습의 방향 설정 :

-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작품 읽기 활동

- 작품 속에 담겨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把握하는 활동

- 작품이 생겨나게 된 계기와 창작 동기를 이해하는 활동

④ 본시 학습 목표 제시 및 확인

⑤ 본시 교수-학습할 내용 예고 및 학습 관련 사이트 소개

·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며 작품 읽기

·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의 의미 이해하기

⑥ 학습 동기 및 흥미 誘發

· 최근에 반영되고 있는 TV 사극 또는 드라마가 무엇인지 학

생들에게 물어본다.

· 당대 사회상을 推理할 만한 한 장면을 간략히 설명하고, 2~3명의 학생을 指名하여 당대 사회상을 말하게 한다.

(2) 전개

① 작품 읽기

· 이 활동은 단순히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재조직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는 점을 主知시킨다.

· 작품을 읽은 후, 그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 활동이 전개됨을 인식시킨다.

· 교사는 학생들의 작품 읽기 활동이 전개되면, 읽기 후의 활동 자료를 준비한다.

· 작품을 모두 읽은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습지를 나누어 주고, 작품 속의 주요 사건들을 기술하도록 하되, 앞뒤·좌우 학생들끼리 서로 내용을 검토하게 한다.

·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지를 작성하여 활동하게 하되, 주요 사건만 교사가 칠판 등에 제시하고 학생들이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상황을 찾아 적도록 지도한다.

· 교사는 전체 학생들에게 사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상황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간략히 판서해 가며 정리해 준다.

〈표 6〉 작품 속의 주요 사건들의 기록

주요 사건	구체적 상황
허생의 생활	1. 허생의 글읽기 2. 아내의 성화에 의한 허생의 가출

허생의 시험	1. 변씨에게 만냥을 빌림 2. 장사로 큰 이익을 남김 3. 무인도를 찾아감 4. 변산 群盜의 우두머리를 懷柔함 5. 무인도를 경영함 6. 허생이 歸還을 준비함
변씨와 교분	1. 허생이 변씨 돈을 갚음 2. 허생의 내력을 변씨가 들음 3. 허생의 운명관과 현실관
허생과 이완의 만남	1. 변씨가 허생과 이완의 만남을 周旋함 2. 허생이 세가지 계책을 제시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부함
허생의 잠적	1. 사대부를 비판하며 이완을 꾸짖음 2. 허생의 잠적

② 사전지식의 학습 및 진단

학습자들이 문학 텍스트를 스스로 찾아 즐겨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태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감동적인 요소를 찾아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으며, 상상에 세계에 대한 흥미 및 관심과 문학의 창조성에 대한 이해가 도달되어진 상태를 사전지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문학의 개념을 묻는다

- 각 모둠별로 질문을 던져 대표가 각각 대답하게 한다.

- 국문학의 範疇에서 한국 한문학에 대한 見解를 자유롭게 토론하게 한다.

- 국문학의 개념에 대한 각 학자들의 주장을 모둠별로 討論하게 한다.

· 고전소설에 대한 과제를 미리 조사해 오게 해서 각 모둠별로 1명씩 발표를 시킨다.

· 작가와 그의 문학관에 대한 조사를 모둠별로 조사를 해 오게

하여 대표가 각각 발표하게 한다.

· 작가의 대표적 사상인 利用厚生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여 본시 학습에서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게 한다.

· 사전지식의 진단은 교사가 간단한 쪽지로 질문을 하나씩 적어서 모둠별로 나누어 준다. 한 반에 학생이 약 30명 정도이므로 5명씩으로 하면 6모둠이 된다.

③ 줄거리 잡기

· 모둠별로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형식 단락을 구분한다.

· 서로 토론하여 형식 단락을 다시 요약한다.

· 모둠별로 대표가 발표를 한다.

· 모둠별 발표내용을 모아 교사와 학생이 이야기로 엮는다.

· 교사가 종합하고 정리해 준다.

④ 작품 구조의 의미

· 학생들에게 허생의 행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들의 얼개를 짜게 한다.(개별학습)

·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거기서 드러나는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게 한다.(협력 모둠학습)

· 다시 세분화시켜 4단락으로 나누게 한다.(협력 모둠학습)

·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의 통일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게 한다.(모둠별로 토론하게 한다)

· 총체적 의미를 糾明해서 발표하게 한다.(모둠학습)

· 작품구조의 의미를 교사가 자세히 설명하며 정리해 준다.

(3) 정리

① 학습 내용 정리하기

- 고전문학의 이론적 지식 정리하기
- 줄거리에 따른 내용 요약하고 정리하기
-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의 의미 정리하기

② 형성평가 실시하기

별도의 형성 평가지를 작성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교과서의 88~89면을 이용하여 전체 학생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과제 및 차시 예고

- 작품구조 개별적으로 분석하기
- 등장인물 분석하기

④ 작품구조와 인물구성 및 주제의 구현

2) 4차시 수업

(1) 인물의 형상화

① 앉은 좌석을 중심으로 7명이 1개 모둠이 되어 활동하게 한다. (7명씩 하여 모두 4개의 모둠으로 구성한다)

② 모둠 별로 허생, 허생의 처, 변씨, 이완대장에 대한 인물 분석을 한 후 토론을 거쳐서 각 모둠의 대표가 발표를 한다.

③ 수업시간에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면 미리 개별학습과 과제학습으로 제시하여 발표하게 할 수도 있다.

④ 교사는 이러한 인물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주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미리 과제로 제시한다.

(2) 주제의 구현

① 번호를 중심으로 하여 4명이 1개 모둠이 되어 활동하게 한다.

② 7개의 창조적 질문을 각 모둠의 과제로 제시한다.

③ 협력 모둠학습의 결과에 따라 모둠별로 발표를 하게 한다.

④ 최종적으로 교사가 창조적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정리해 준다.

(3) 의식의 한계성

① 작가의 실학사상과 北伐論을 학생들에게 미리 과제로 제시한 후 한 두 명을 指名하여 발표를 시킨다.

② 교사는 학생들에게 才物觀과 階層觀에 대해 설명해 준다.

③ 작가가 작품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식이 무엇인가를 학생들에게 작품 속에서 찾아보게 한 후 발표를 하게 한다.

④ 矛盾點과 비판할 점이 있는지 학생들로 하여금 찾아보게 한다.

3) 5차시 수업

(1) 학습내용 종합 정리

①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게 하되, 교사는 칠판에 간략히 판서한 후 수정·보완 후에 부연 설명해 준다.

② PPT로 재구성하여 一目瞭然하게 정리해 준다.

③ 토론의 결과는 별도로 정리할 필요는 없으며, 교사가 토론 후 듣기 활동이 정보의 조직과 활용의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 평가

평가 단계는 학생들이 얼마나 작품을 잘 이해하고 감상했는가에 대한 점검으로 여기서는 국어(하)에 실린 학습활동으로 하였다. 7차 교과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문 내용 중간의 단락이 끝나는 곳에 혼자하기, 함께하

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본문을 공부하는 틈틈이 작품에 대해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3) 내면화

① 텍스트의 상호성 확대 : 『허생전』을 선택하여 독서를 경험하게 하여 <PPT>로 구성하였다. 5명씩의 6개 모둠에 한 문제씩 부여하여 같이 협력하여 대답하게 하였다.

4) 6차시 수업

(1) 내면화

②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 기존의 노래를 단원 내용으로 바꾸어 가사 바꿔 부르기로 해서 가장 잘 부른 조의 노랫말을 학급에 普及해서 부르게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그동안 수업 시간에 지루해 하던 학생들이 의외로 노랫말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가장 우수한 조는 테이프에 녹음을 한다고 했더니 더욱 열심히 수업을 하게 되었다.

③ 만화로 재구성하기 : 단원을 학생들이 좋아하는 만화로 재구성하게 하였더니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만화로 그려온 것은 스캔을 떠서 모니터로 보여주며 재구성 수업을 했더니 흥미가 매우 高調되었다.

④ 독후감상문 쓰기 : 수업을 하고 난 후 학생들로 하여금 그 감상을 적어보라고 하였다. 시간적 제약으로 그 뒷부분은 과제 학습으로 제시하여 다음 차시에 개별적으로 발표를 시켜 보았다. 전체적으로 과제물에 대한 평가와 정리를 한 후 독후감상문 쓰기의 학습효과를 설명해 주었다.

C. 교수-학습 목표 설정

『허생전』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설 및 고전소설의 요소 알기와 문학 작품 감상의 즐거움 알기, 문학과 현실의 관계성 알기, 작자의 창작 동기 알기 등이다. 이런 점들을 사전 및 배경지식으로 먼저 攄得하고 나서 작품속의 실학사상, 주요 인물의 행동과 성격, 시대적 배경 등을 把握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제 7차 고등학교 『국어과』의 '국어' 및 '문학' 교과서에도 소설교육의 내용으로 나와 있다.[18]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개편된 국어 (하)에 실린 『허생전』의 교수-학습 목표는 도입부에 나열식으로 정렬되어 있던 제 5차, 제 6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대단원의 도입단락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 작품 내용의 중간 중간에 다시 조금 세분화시켜 교과서 하단부에 '알아두기'란 면을 두어 제시하고 있다. 나중에 '단원의 마무리'와 '점검하기' 면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圖表化시켜 상·중·하로 점검을 유도하고 있다.[19]

· 문학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의 구체적 의미와 보편적 의미

---

18) 제 7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크게 7개의 대단원과 15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단원의 '정보의 조직과 활용'의 두 번째 소단원이 『허생전』이다. 이러한 단원의 구성은 문학작품을 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언어활동의 산물로 보기 때문이고 또한 언어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재조직하여 활용하는 능력과 태도가 더욱 필요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19) 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은 대단원과 連繫하여 첫 번째 소단원은 개념·지식·원리를 이해하는 단원이고, 두 번째 소단원은 첫 단원에 배운 것들을 적용하고 활용해 보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생전』은 두 번째 단원인 정보의 조직과 활용 단원에서 첫 번째 단원에서 배운 개념과 원리를 적용해 보는 단원이다.

를 이해할 수 있다.

. 작가의 상황과 관점을 고려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 목표는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교육 과정의 정신을 반영하고 활동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통합적 교수-학습을 指向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문학이 指向하는 것은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包括的이고 抽象的이어서 이러한 指向點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제 7차 교육과정이 指向하는 통합적 교수-학습 목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의 부분적이고 槪略的인 것[20]이 아닌 전체적인 내용을 包含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가능한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학생들이 보다 더 작품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허생전』의 교수-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안목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보았다.

. 소설작품이 역사적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 수 있다.

. 작가의식이 작품에 어떻게 投影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인물들의 행위방식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에 대응하는 삶의 자세를 알 수 있다.

. 『허생전』을 읽고 나서 그 느낌을 글로 적어서 발표할 수 있다.

. 『허생전』의 줄거리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 『허생전』을 이루는 요소들의 작용을 알 수 있다.

---

20) 제 5차와 제 6차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 목표는 '읽기'와 '쓰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말하기'와 '듣기'가 부족한 점이 많다.

D. 사전 지식의 학습

1) 국문학의 개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한 생활과 사상과 감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리의 말로 표현된 우리의 문학이다. 다만, 漢字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은 '鄕歌'는 국문학에 포함되며 '한문으로 된, 우리 조상이 남긴 문학'을 두루 '한국 한문학'이라 일컫는데 이 한문학도 국문학의 한 부분으로 包含하고 있다.[21]

2) 고전소설의 이해[22]

(1) 고전소설이란?

고전소설이란 옛날 說話를 바탕으로 중국 소설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산문 문학의 한 종류로 甲午更張(1894) 이전까지의 옛 소설을 말한다.

(2) 발생과 발달

고대설화 → 패관문학, 가전체소설 → 고소설 → 신소설 → 현대소설

① 한문소설

우리나라 소설은 傳奇的 요소를 간직한 한문소설에서부터 출발한다. 傳奇的이라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珍奇한 것(일상적 현실적인 것과 거리가 먼 신비로운 내용)을 虛構的으로 짜 놓은 것을 말한다.

김시습의 『金鰲新話』가 한국 고대소설의 嚆矢인데, 이 작품은 민중 사이에서 구전되던 설화, 고려의 패관 문학, 가전체 등의 서사적 전통 위에 중

21) 제 7차 중학교 교육과정 국어 2-2학기, 7-(1) 국문학 이야기 (이병주)

22) 제 7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따른 참고서 (한샘, 하이라이트, 2003)

국의 전기소설인 『剪燈新話』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 전기적 요소를 간직한 한문소설은 고대소설의 출발을 보여주며 국문소설이 나오기 전에, 임제의 『元生夢遊錄』, 『愁城誌』, 『花史』 등의 假傳과 夢遊錄 양식의 전통 속에서 전개되었다.

② 국문소설

한국 문학사에서 眞正한 국문학으로서의 소설 문학은 광해군 때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에서 비롯된다.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은 당시 조선 사회 구조의 根幹이었던 신분질서에 큰 動搖를 가져왔다. 양반과 평민계층 모두에서 신분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평민들의 자각의식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평민계층의 문화적 참여와 함께 문학에서 산문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이에 따라 소설의 隆盛期를 맞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소설은 몰락한 양반 내지 평민들의 환상과 꿈, 그리고 시대적인 요구와 개혁의 의지 등을 반영하였다.

③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

· 주제 : 勸善懲惡, 因果應報의 내용이 많다.

· 구성 : 평면적 구성, 일대기적 구성, 시간적 순서

· 인물 : 전형적, 유형적, 평면적 인물

· 사건 : 우연적, 전기적, 인위적 결말(행복한 결말)

· 배경 : 중국(중국소설 영향, 『홍길동전』, 『숙영낭자전』 예외)

· 문체 : 운문체, 문어체(판소리계 소설은 구어체를 많이 활용하였다)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서술자의 介入, 편집자적 논평이 많음)

· 작자 : 대부분 未詳이지만 작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小說 無用論- 허균, 김만중, 박지원 등 예외)

④ 유형별 분류

· 艶情소설 : 남녀의 사랑과 연애를 다룬 소설.
(『춘향전』, 『옥단춘전』, 『숙향전』, 『숙영낭자전』 등)

· 가정소설 : 가정사적 소설(『콩쥐팥쥐』, 『장화홍련전』 등)

· 군담소설 : 주인공이 전쟁에서 영웅적 活躍을 전개하는 소설

- 역사 군담 소설 : 역사적 사실 바탕으로 전란의 피해, 복수에 대한 희망 (『임진록』, 『임경업전』, 『박씨전』)

- 창작 군담 소설 : 몰락 양반을 包含한 평민들의 출세 의지, 정치 의식 등을 다룸 (『류충렬전』, 『소대성전』)

· 판소리계 소설 : 설화에서 발전된 판소리 사설에서 창작된 소설(춘향전, 홍부전, 심청전, 배비장전, 옹고집전, 변강쇠전, 토끼전 등)

〈표 7〉 설화 · 판소리 · 판소리계 소설 · 신소설의 비교

배경 설화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신소설
旁包 설화	흥부가	흥부전	燕의 脚
仲寃 설화	춘향가	춘향전	獄中花
열녀 설화			
암행어사 설화			
귀토지설	수궁가	별주부전	兎의 肝
효녀지은 설화	심청가	심청전	江上蓮
居陀知 설화			

· 영웅소설 :『주몽신화』에서 보이는 영웅의 일생23)과 같은 脈

23) 영웅 소설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화된 이야기 구조, 아래 7개의 항목이 모두 나타나거나 일부분 생략되어 나타나기도 함
① 고귀한 혈통

絡에 있는 소설 (『유충렬전』, 『원생몽유록』 『조웅전』 등)

· 몽유소설 : 현실에서 뜻을 펴지 못했던 인사가 꿈속의 異界에서 자신의 뜻을 인정받거나 펼쳐 보였다는 내용 (『元生夢遊錄』, 『壽聖宮夢遊錄』, 『大觀齋夢遊錄』 등)

· 전기소설 : 초현실적, 비과학적, 비인간적 세계 등을 표현함. (조선 초 대부분의 소설로 『금오신화』, 『홍길동전』, 『전우치전』 등이 있다.)

3) 작가에 대한 이해

(1) 生涯

燕巖의 생애를 3기로 구분해 보면, 제 1기는 35세(1771년) 과거를 폐할 때까지의 文章 修學期로, 정신적 葛藤과 挫折 속에서도 현실에 대한 冷徹한 인식을 토대로 비판 의식을 키워 나갔던 시기이며, 제 2기는 문장 활동에 전념하면서 실학사상을 확립해 나갔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제 3기는 50세 이후로 과거의 반항적 생활에서 벗어나 出仕하여 제 2기에 확립한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실천에 옮기려 했던 시기에 해당된다.[24]

「허생전」은 박지원이 청나라에 머물러 있던 1780년에 지은 한문소설로 친척 형인 박명원을 따라나선 熱河行 이후의 작품이다. 이 계기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더욱 넓어지고 학문도 체계를 잡기 시작하였다. 민족의 앞날

---

② 비정상적인 孕胎 또는 출생
③ 凡人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
④ 어려서 버림받거나[棄兒] 죽을 고비에 이름
⑤ 구원자, 양육자를 만남
⑥ 자라서 다시 위기에 처함
⑦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하고 위업을 달성함

24) 박기석, 『박지원 문학 연구』(서울, 삼지원, 1984), 63쪽

을 내다보고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先驅者的 안목을 잘 반영하고 있다.

(2) 문학관

박지원은 자기 자신을 文人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박지원의 문학은 과거를 통해서 입신하는데 필요한 詞章도 아니며, 사림으로 물러나서 심성을 기르는 데 필요한 載道之器도 아니었다. 그러한 문학을 모두 거부하는 데서 문학을 하는 보람과 의의를 찾았으며, 실학에 근거를 둔 문학을 주장하고 실행했다. 실학에 근거를 둔 문학이라면 실학의 당면한 과제를 문학으로 표현하거나 실학의 사회관에 따라서 문학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박지원의 문학 사상은 이러한 것만도 아니었다. 실학자들은 흔히 문학 자체는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문학이 실학의 요구를 따르도록 하는데 논의를 집중시켰는데, 박지원은 문학이야말로 落拓不遇한 위치에서 사회를 비판하는 선비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고, 문학으로 실학을 이루었다.[25]

燕巖의 문학관은 우선 法古에서 변할 줄 알고 典雅할 수 있는 '法古刱新'을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 그는 「楚亭集序」에서,

> 옛 것을 본받는 사람들은 옛 것에서 얽매여 벗어나지 못함이 병이요, 새것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그 불경됨이 근심이라. 진실로 능히 옛것을 본받으면서도 변화할 줄을 알고, 새 것을 창조해 내면서도 능히 典雅한 글을 짓는다면 이 시대의 글이 옛 시대의 글과 같게 될 것이다.[26]

라고 하여 옛 글을 배우되 현실에 알맞게 變通할 때 그것은 훌륭한 글이

---

25) 조동일, 『한국문학 사상사 시론』, (서울, 지식산업사, 1978), 259쪽

26) 박지원, 『燕巖集』, 권1, 「楚亭集序」, (경희출판사, 영인본, 1996), 12쪽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의 현실과 시간적·공간적으로 동떨어진 당대 文壇風潮를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문학이 指向해야 할 바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眞'의 문학을 강조하였다. 이는 작가가 사는 현실에서 소재를 취하여 그 시대의 언어로 眞率하게 표현된 독창적인 문학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품위 있는 용어만을 사용하여 분장하려고 함으로써 현실을 잘못 표현할 위험성을 지적하고, 현실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생생하게 나타낼 것을 주장한다. 「孔雀館文稿自序」와 「騷壇赤幟引」에서,

> 말은 반드시 큰 뜻을 담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한 푼, 한 毫, 한 黍 만한 일도 다 말할 만한 것이다. 기왓장이나 자갈이라고 해서 어찌 내어 버리겠는가? 그러기에 도올은 나쁜 짐승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초사에서 그 이름을 취했고, 사람을 죽이고 무덤을 파헤치는 凶惡한 도적에 대해서도 司馬遷이나 班固가 그의 책에서 다루었던 것이다. 대체로 글이란 오직 그 진실 됨이 중요한 것이다.[27]
>
> 그 이치를 얻은 즉 집안사람들의 일상 이야기가 오히려 학관과 나란히 서게 되고, 아이들의 노래나 마을의 비속한 말이 이아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글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은 문자의 죄가 아니다. 저 자구의 아속을 평하고, 편장의 높고 낮음을 논하는 자들은 모두 합변의 기틀과 제승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28]

라고 하여, 사실적인 표현과 더불어 상스러운 일상어와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나 아이들의 노래 및 마을의 상말까지도 市井의 생활상을 그대로 묘사하기 위해 적극 수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燕巖은 글로써 遊戱를 삼는 戱文으로서의 문학을 주장하였다. 南公轍이 그의 「熱河日記」의 문체에 대한 정조의 叱責을 전하였던 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서 자기의 문학에 대한 자세를 말하였다.

---

27) 박지원, 『燕巖集』, 권3, 「孔雀館文稿自序」, (경희출판사, 영인본, 1996), 57쪽

28) 박지원, 『燕巖集』, 권1, 「騷壇赤幟引」, (경희출판사, 영인본, 1996), 25쪽

나 같은 사람은 중년 이래 落拓하여 쓰러져서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고 글로써 유희를 일삼았다. 때로 궁색한 근심과 무료함이 느껴지고, 잡되고 무심한 말을 일삼고, 배우처럼 남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니, 참으로 천하고 비루하다. 성벽 또한 게으르고 산만하여 몸을 단속하는데도 바르게 하지 못하였다. (나의 글 쓰는 재주가)벌레를 새기고 갈대를 그리는 정도의 기술임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자신을 잘못되게 하도 다른 사람도 誤導하였다.[29]

落拓해서 불우하게 된 사람이 上昇의 염원을 버리고,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회질서를 諷刺하는 글을 썼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횡포와 허위를 용납하지 않는 강한 의식으로 글을 썼기에 온통 滑稽이고 諷刺이다.[30]

『허생전』의 독창적인 문체는 작가의 명확하고도 사실적인 문학관의 구체화로 생성되었다. 『허생전』은 고문의 模倣이 아닌 燕巖의 독창적인 문체로 형상화된 작품이다. 작가적 현실에서 소재를 취하여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며, 사회질서의 矛盾 등이 赤裸裸하게 諷刺된 것이다. 따라서 『허생전』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燕巖의 분명한 문학관의 구체적인 형상화로 생성된 작품 중 하나임을 수용하여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작가의 이러한 문학관을 제시해 준다면 학습자는 작품을 더욱 잘 이해할 것이다.[31]

(3) 利用厚生 철학[32]

燕巖은 「熱河日記」에서 "그들 (청나라)의 壯觀은 기왓조각에 있고, 또 똥무더기에 있다."라고 말하며 하찮은 물건이라도 실생활에 적절하게 이용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청나라 사람들의 생활 자세를 부러워했다. 이런 생

29) 박지원, 『燕巖集』, 권2, 「答南直閣公轍書」,(경희출판사, 영인본, 1996), 33쪽
30) 조동일, 앞의 책, 274쪽
31) 서경아, 앞의 논문, 23쪽
32)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하), 76쪽

각은 '쓰임을 이롭게 한(利用)뒤에야 백성들의 생활이 풍부해지고(厚生), 백성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한 뒤에야 그들의 행실을 바른 데로 이끌 수 있다.'는 利用厚生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燕巖의 이용후생 철학은 명분과 무기력에 사로잡힌 당시 양반사회를 향한 비판의 바탕이었으며 현실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태도(實事求是)로 이어지고 있다.

E. 사전 지식의 진단

1) 국문학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範疇를 설정하시오. (1모둠)

예시답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내용으로 하여 우리말로 표현한 문학으로 한문으로 쓴 한국 한문학도 包含한다.

2) 고전소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2모둠)

예시답안 →작자는 대부분 未詳이며 평면적 구성이다. 전형적·평면적 인물이며 시간적 순서로 되어있다. 주로 勸善懲惡, 因果應報的 주제이며 사건은 우연적·전기적이다. 문체는 운문체, 문어체이며 전지적 시점이다. 서술자의 介入이나 편집자적 논평이 많고 행복한 결말이 대부분이다.

3) 영웅의 일대기는 어떠하며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3모둠)

예시답안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 출생, 卓越한 능력을 지녀 棄兒지만 양육자를 만나 성장한다. 죽을 고비에 이르지만 구원자 덕분에 위기를 벗어난다. 위기들을 투쟁으로 극복하고 위업을 달성한다. 『류충렬전』 등

4) 실학사상이 일어난 계기와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시오. (4모둠)

예시답안 →1. 계기 : 양반사회의 矛盾에 대한 내적 비판에서 일어났고 전통적 사회체제를 극복하고, 새 사회를 이루려는 의지의 실현임.
2. 시대적 배경 : 1) 조선왕조가 直面한 통치 질서의 瓦解現象
2) 조선 후기 사회의 경제적 변화와 발전
3) 조선 후기의 사회계급 면의 변동

4) 조선왕조가 蓄積해 온 학문적 전통

5) 실학사상의 바람직한 점을 설명하시오. (5모둠)

예시답안 → 士林의 성리학이 현실 세계에서 긍정적 의미를 상실하자, 현실을 토대로 한 기층세계의 입장에서 개혁하고자 했기에 비판정신, 과학정신, 근대지향 의식, 실천의지, 민족의식, 열린 세계관을 강조한다. 곧, 실학사상은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 속에서 자율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려는 긍정적 입장에서 역사성이 온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6) 燕巖 박지원의 문학관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인가? (6모둠)

예시답안 → 1. 諷刺문학 : 燕巖의 문학은 불우한 환경에서 胚胎된 戱畵된 諷刺性으로 대표될 수 있다. 기득권층인 당시의 집권사대부들의 偏狹性과 虛僞性을 비판하면서 그로 인한 백성들의 실제적 삶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諷刺하고 있다.

2. 휴머니즘 : 燕巖의 휴머니즘은 권위주의적인 성리학의 윤리체계와 비인간적으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당시 정치권력의 不條理와의 저항과정에서 형성되었고, 그것이 그의 작가정신의 기초가 되었다. 이 점은 그의 소설에서 저항사회의 인간군에 대한 '인간긍정'이라는 그의 작가적 태도에 잘 드러난다. 예로 '廣文者傳'의 광문, '兩班傳'의 천부, '허생전'의 변산 群盜들은 조선 사회의 하층에서 천대받던 소외된 인간들이다. 따라서, 허위에 차 있는 양반사대부는 비판되며, 비록 미천한 출신으로서 淺薄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도 생활에 성실하면 燕巖의 소설에서는 稱頌의 대상이 된다.

3. 利用厚生 : 燕巖의 사상은 利用厚生과 선비 의식을 그 바탕으로 한다. 선비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형식주의에 빠져 空論만을 일삼는 당대의 보통 사대부와는 구별되는 생존의 가치관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한다. 18세기, 부정과 부패 및 壬辰倭亂, 丙子胡亂과 같은 내외적인 혼란 속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고가 요청되었다. 燕巖은 연경에서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문물제도를 견문한 것을 바탕으로 풍속·경제·병사·천문·문학 등 각 방면에서 청의 신문물을 소개하여 경제생활의 향상과 기술의 존중을 주장하였다.

3. 지도 단계[33]

A. 줄거리 잡기

줄거리 잡기는 소설의 줄기, 즉 핵심 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났나를 붙드는 힘을 기르기 위한 학습의 필수적 요건이다. 줄거리를 적어보라고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모를 뿐더러 漠然하기 때문에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개요를 작성하여 줄거리를 공책에 정리한다. 교사가 발표를 시키고 이를 토대로 학생과 함께 교사가 같이 이야기 중심으로 해도 좋고 ICT를 활용하여 종합하고 정리해주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줄거리를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교사의 판단아래 과제로 제시하여 다음 시간에 모둠별의 대표로 발표를 시켜도 좋다.

아무리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수업일지라도 시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된다. 교사가 마음먹고 학습을 해 나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리 계획한 대로 시간을 적절히 按排시키는 지혜가 학습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1) 글 읽기만 좋아하던 허생이 叱責하는 아내로 인하여 집을 나온다.

2) 대범한 부자인 변씨에게 당당하게 돈 만 냥을 빌린다.

3) 안성 과일, 제주도 말총장사 등, 매점매석으로 큰 돈을 벌인다.[34]

---

33) 실제의 지도는 현실적 교실환경을 중심으로 하여 창조적인 질문으로 질의 응답하는 방식을 택하며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遲滯되는 것을 止揚하고 실제의 수업위주의 단계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국 테크노 과학 고등학교(남녀공학) 학생들의 지적수준과 학습능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34) 허생이 과일과 말총을 산 이유로 여러 가지 의견을 학생들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였더니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다. 돈을 벌어야 변씨에게 진 빚도 갚을 수 있고, 가난해서 도둑이 된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결국 과일과 말총은 주로 양반들과 관계있는 물건이고 그것은 양

4) 사공이 가르쳐 준 빈 섬을 찾아내어 도둑들을 섬으로 데리고 간다.

5) 농작물을 장기도에 팔아 백만 냥을 벌이고, 이상세계를 실현한다.[35]

6) 빈민을 구제하고 남은 돈으로 변씨에게 열배로 돈을 갚는다.[36]

7) 어려운 허생의 생계를 변씨가 도와주면서 서로 교분을 가진다.

8) 변씨 소개로 만난 이완[37]에게 時事三策[38]을 제시하나 거절당한다.

9) 허생이 어디론가 蹤迹을 감추어 버린다.

이러한 줄거리 잡기 학습은 앞의 교수-학습 목표에서도 밝혔듯이 학습자에게 학습내용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B. 작품 구조의 의미[39]

반들을 곤란에 빠뜨리게 되고 곧 사대부계층(양반)에 대한 비판이 된다고 하였다.

35) 백만 냥 가운데 오십만 냥을 바다에 버린 게 이상하지 않느냐? 돈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도 많아 질 텐데?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학생들은 '허생은 나라가 작아 그 많은 돈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버린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허생은 애초에 꾼 돈이 만 냥뿐이고, 오십만 냥만 가지고 가도 일을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버린 것'이라도 하였다.

36) 이 부분에서 "왜 허생은 자기와 아내를 위해서는 돈을 쓰거나 남겨두지 않았을까? 돈의 힘을 그렇게도 잘 아는 사람이?"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 중에서도 '허생은 자기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 몫은 남겨두지 않았다'는 대답이 가장 인정을 받았다.

37) 소설속의 허구적 인물 '이완'과 역사적 실존 인물 '이완'은 동일 인물이 아니다. 지은이는 北伐과 관련지어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당시 北伐의 실무 책임자로 활약한 역사적 실존 인물인 '이완'을 등장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8) 허생이 제시하는 현실대응책의 세 가지 계책으로 인재의 등용과 허구적 親明背靑 정책의 개선, 북벌을 위한 전략적 교류이다.

39) 이러한 구조의 의미는 교육의 실제현장에서의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학문적인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로서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데 커다란 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 설명은 당연히 보기를 들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해야 한다. 본고의 의도도 그렇지만 작품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줄거리를 주인공 허생의 행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로 把握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작가가 이 『허생전』을 통해 요소들이 주제를 드러내는 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 작품에서는 사건들의 인과 관계가 이분화 되어 있다. 줄거리 정리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의 서술구조상 ①~⑥을 전반부로 보고 ⑦~⑨를 후반부로 보면, 전반부는 허생이 직접 몸으로 겪은 활동에 관한 이야기로 도입·중심·마무리 등의 완결된 서사구조로 되어 있다. 즉, 허생의 빈민구제를 통한 이상세계의 指向과 그것의 실현이라는 주제정신을 설정해 놓고 있다. 전반부가 허생의 실제 행동을 통하여 겪은 일을 다룬 것이라고 하면 후반부는 허생이 자기 집에서 손님을 맞아 주고받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時事三策을 제시하지만 이완 대장이 거부하자 그를 꾸짖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서사구조로 보면 허전하고 빈약하면서 전반부의 내용과의 연결도 매끄럽지 못하고 엉성하기까지 하다. 전반부가 완벽하게 의도한 목적을 이루었다면 후반부는 끝맺음도 흐지부지하게 처리 되었으며 그들이 전혀 별개의 사건들로 전혀 어울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후반부는 작품의 완성도에 흠집만 내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異質的 구조는 오히려 작품을 더 빛나게 하려는 작가적 의도로 보아진다. 이러한 큰 두 단락의 구조를 다시 세분화 시키면 1)허생의 상행위(①~④), 2)허생의 사회활동(⑤~⑥), 3)허생과 변씨의 교분 및 대화(⑦), 4)허생과 이완의 담판(⑧~⑨)이라는 네 개의 큰 단락으로 짜여지는데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각각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40]

1) 조선후기 경제가 허약하게 된 원인은 買占賣惜과 같은 유통질서의 인위적 歪曲과, 운송수단의 미비에서 오는 물화의 정체 현상에 있다. 그런데 전자 또한 후자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만큼, 근원적인 원인은 후자에 있다. 따라서 허약해진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이를 위해

를 알아보기 위한 필수적인 교수-학습의 전개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0) 이원수, 『고전소설 작품세계의 실상』,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203~205쪽

서는 운송수단의 확충과 같은 유통구조의 개선이 先決되어야 한다.

2) 조선후기 사회의 가장 切迫한 문제는 백성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極度의 빈곤이다. 따라서 사회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富의 축적을 통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부의 축적은 상업의 활성화와 해외무역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집권층들은 사적 이익 추구에 급급하여 表面的 현상에만 姑息的으로 대처함으로써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를 束手無策인 채로 放置해 두고 있다.

3) 허생과 변씨의 교분 및 대화는 가)-나)에서 허생의 행위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암시한 의미들을 언어적 진술을 통해 명시함으로써 작자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게 하는 安全裝置 역할을 하고 있으며, 北伐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 시각을 미리 노출시킴으로써 다음에 이어질 이완과의 談判으로 이해할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4) 이완과의 談判을 통해 제시되는 北伐論에 대한 비판은 당대 현실에 대한 友誼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선후기 사회가 당면한 懸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가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華夷論적 명분주의를 버리고 주체적 실리주의를 택하는 근본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집권층은 이러한 의식 전환을 거부한 채 청의 문물을 오랑캐 문화라고 排斥함으로써 懸案 해결의 길을 스스로 遮斷하고 있다.

결국 『허생전』의 총체적 구조와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과 2)는 서사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조선후기 사회가 당면한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2)를 통해 表面에 드러난 사회 혼란의 원인을 진단하고, 1)를 통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심층적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둘의 결합을 통해 현실 문제의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라)는 1)-2)와 직접적인 서사적 連繫性이 없으며, 작가는 이를 통해 현실문제에 대처하는 집권층의 安易한 자세와 위선적 실체를 赤裸裸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1)-2)와 4)는 서사적 연계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서술시각이나 의미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1)-2)의 경우 현실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처하는 허생의 시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4)는 이에 대한 집권층의 시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자가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대내적 경제문제를 주된 관심사로 삼고 있음에 비하여, 후자는 명분주의를 바탕으로 대외적 정치문제를 주된 관심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절되어 보이는 1)-2)와 4)는 3)의 매개에 의하여 하나의 의미가 비로소 구체화되어 드러난다.

C. 인물의 형상화

소설에서 특정한 인물이 일정한 공간에서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규정할 때 '인물'이라는 장치가 작품 전체에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 수행된 역할은 사회적·역사적 삶과 어떻게 긴밀하게 결부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주인공인 허생과 그의 처, 변씨(변승업), 이완대장 등이다. 그들의 유형적 특성을 밝히면서 그러한 인물이 어떻게 작품 속에서 형상화되어 작가가 의도한 뜻을 구현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허생은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沒落한 선비이다[41]. 그의 겉모습은 술이 다 빠진 실띠를 매고, 뒷굽이 젖혀진

41) 앞의 책, 국어(하) 74쪽,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글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하였다.

가죽신을 신고,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것으로 거지나 다름이 없다.[42]

그러나 그는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道를 살찌우는 것에 가치를 두며[43]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한 사람이다. 변씨에게 돈을 빌리러 가면서도 말이 간단하고 눈이 傲慢하며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존심이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44] 장사치로 취급받기를 강하게 거부하고 양반[45]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는 선비이다. 또한 그는 말이 통하지 않는 도둑들을 말로써 설득시키는 그런 사람이다.[46] 어렵게 번 은돈 오십만 냥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행동을 통해 볼 때 度量과 排布가 큰 인물[47]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완대장과의 對面에서 나타나듯이 집권층이라는 實勢에도 결코 비겁하지 않다. 당당한 태도로 잘못된 爲政者에 대해서는 秋霜같은 호통을 치는[48] 强直한 인물이다.

허생의 이러한 성격은 한 개인이 지닌 개성적인 차원에서의 특성이 아니다. 道에 참다운 가치를 두면서 이를 실천하고자 애쓰는 선비이며 무능하

---

42) 앞의 책, 국어(하) 76쪽, 실띠의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갖신의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43) 앞의 책, 국어(하), 83쪽,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오. 만냥이 어찌 道를 살찌게 하겠소?"

44) 앞의 책, 국어(하), 76쪽,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45) 앞의 책, 국어(하), 84쪽,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여,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 버렸다.

46) 앞의 책, 국어(하), 79쪽~81쪽

47) 앞의 책, 국어(하), 82쪽, 돈 오십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주워 갈 사람이 있겠지. 백만 냥은 우리 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48) 앞의 책, 국어(하) 90쪽~91쪽,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고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잘못된 사대부를 叱責하고 비판하는 참된 사대부인 것이다. 이것은 작가가 작품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실현 할 수 있는 인물의 형상화로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과제 학습으로서 제시한 허생에 대한 인물의 분석[49]을 살펴보면,

(1) 당당하고 오만하다.

①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兩)을 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

③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2) 장사수완이 좋고 과감하게 일을 처리한다.

①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 하구나."

② "몇 해 지나면 나라 안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③ "조선이란 나라는 ~ 병들게 만들 것이오."

(3) 문제해결사로서의 비범한 異人이다.

①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없던가?"

② "땅이 천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 보겠는가?"

---

49) 허생의 인물에 대한 분석은 제 7차 교육과정 국어 (하) 교과서의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의 행동과 말을 토대로 하였다. 학생들이 발표한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였다.

③ "덕(德)이 있으면 사람이 절로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나?"

④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⑤ 이완대장에게 富國强兵을 圖謀할 수 있는 실리 추구 정책을 펼칠 세 가지 계책을 제시한다.

(4)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사람이다.

①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소."

② 허생은 몸소 이천 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③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5) 돈과 재물을 하찮게 여긴다.

① 돈 오십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②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백만 냥을 버리고 십만 냥을 받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오?"

(6) 외로운 사람이다

① 허생의 세 가지 계책에 대해 이 대장이 전부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②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7) 선비(사대부)임을 강하게 의식한다.

① "내가 하루 아침의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 읽기를 중도에 폐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 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②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오. 만 냥이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하겠소?"

③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둘째, 허생의 처는 도입부분의 사소한 역할로 그려지지만 사실은 이 작품에서 허생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준다. 허생의 행동을 비난하며, 그의 행동을 觸發한 인물로 허생을 叱責하는 말[50]속에는 實利를 추구하는 작가의 사상이 담겨 있다. 그녀는 학문이라는 것은 과거 급제의 수단이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직업의 貴賤이나 명분보다는 實利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작가는 양반이라는 士:의식의 발로와 자기만족을 위한 책읽기를 아내의 비난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이는 곧 당시 조선 사회의 무능한 선비들을 책망하는 작가의 의지이며, 나아가서는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의 정신이기도 하다.

셋째, 변씨는 허생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을 한다. 그는 허생의 사람됨이 비범하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대범한 사람이다.[51] 행색이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허생에게 아무런 말도

---

50) 앞의 책, 국어(하), 74면, 처는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바치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 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읽기로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칠년인걸..... ." 하고 휙 문 밖으로 나가 버렸다.

51) 앞의 책, 국어(하) 75쪽, 허생은 변씨를 대하여 길게 읍(揖)하고 말했다. "내가

없이 선뜻 만 냥이라는 큰 돈을 빌려 준다. 허생의 차림새보다는 그의 오만한 눈과 부끄러움 없는 얼굴 기색을 보고 주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외모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변씨는 부자이지만 驕慢하지 않고, 장사치이면서도 돈만을 탐내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대범하고 의리를 중히 여기는 인물이다. 이것은 작가가 추구하는 眞正한 인격자로서의 표본으로서 사회의 지배계층인 사대부도 당연히 그래야 함을 含蓄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그는 앞의 서사구조의 의미에서도 이미 밝혔지만 전·후반부를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허생과 이완대장을 만나게 해 줌으로써 허술하고 단순한 구조가 될 뻔한 후반부의 이야기를 絶妙하게 전반부와 접목시켜 이 작품을 완전한 서사구조로 엮어서 작가의 주제 구현에 이바지하게 한다.

넷째, 이완은 나라의 인재를 구하기 위해 변씨의 소개로 허생을 찾아간다. 하지만 허생이 제시한 현실개혁안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하는[52] 무능하고 그릇된 사대부의 전형이다. 激憤한 허생의 칼을 피해 황급히 도망가는 이완의 모습[53]은 자기희생을 거부하는 비겁한 爲政者의 그것이다. 당시 집권 사대부가 예법과 체면에 지나치게 얽매여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부의 명분과 도리만 찾는 보수적이고 현실 안주에만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완의 태도를 통해 집권층이 명분추구 때문에 실질적이고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兩)을 꿔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씨는 "그러시오."하고 당장 만 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

52) 앞의 책, 국어(하) 88쪽~90쪽

53) 앞의 책, 국어(하) 91쪽,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효과적인 정책을 하나도 수용하지 못하는 무능한 통치자임을 猛烈하게 비판하고 공격한다. 이것은 허생으로 대변되는 眞正한 사대부의 출현을 기다리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 잘못된 사회를 고쳐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작가의 의도된 목적으로서 작가가 작품 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이다. 또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정신이며 사상이다.

1)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떤 관계들인가?

예시답안 →사회·문화적 관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허생과 그의 처를 제외고는 빈민구제를 標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변씨(변승업)을 알게 되어 교분을 가졌고,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변씨가 소개한 이완대장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2) 중심인물은 누구이며 어느 특성이 특히 잘 나타나고 있는가?

예시답안 →주인공 허생이며 현실을 비판하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완전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挫折하는 인간적인 苦惱와 葛藤이 잘 나타나고 있다.

3) 인물 중에 가장 대범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시답안 →부자인 변승업으로서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허생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선뜻 돈 만 냥을 빌려준다.

4) 현실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인물은 누구인가?

예시답안 →당대의 무능한 선비이자 집권층을 대표하는 이완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

5)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시답안 →허생의 처이다. 그녀는 글을 읽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집안의 경제적 형편에는 관심이 없는 허생에게 하소연과 驅迫을 통해 허생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 생산 활동(장사, 상행위)에 뛰어들도록 한다.

6)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고 왜 그러한가?

예시답안 →변승업이다. 그는 銳利한 관찰력과 대범함으로 인재를 알아보고 아무런 대가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7) 허생의 인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가?

예시답안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8) 허생의 현실 개혁안을 거부한 이완의 인물 유형은 어떠한가?

예시답안 →보수적이고 현실의 旣得權에만 戀戀해하는 무능한 인물유형이다.

9) 인물 중에서 가장 비판받아야 할 인물은 누구인가?

예시답안 →이완은 집권층의 矛盾을 재확인하는 인물유형으로 보수적이며 기존의 안정된 위치에 연연하며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 현실 개혁을 망설이는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인물이다.

10) 명분과 체면보다는 실질적인 면을 추구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예시답안 →변승업과 허생의 처이다. 허생의 처는 실제적인 생활의 능력을 중요시 하며 변씨는 허생의 신분도 모르고 비범한 기상에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준다.

인물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작품 속의 인물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봄과 동시에 타인의 삶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한 인식 및 삶의 총체성과 세계관을 자각할 수 있게 해 주고 인물이 소설의 이해를 확산시키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삼아, 작품내의 인물들을 통한 창조적인 질문들을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더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54]

54) 학습현장에서 각 모둠별로 등장인물 중 한명을 선택하여 인물에 대한 질문들

D. 주제의 구현

이 작품을 통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주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작가가 다루고자 했었던 문제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줄거리를 토대로 전반부를 문제 삼을 때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허생의 상행위로서 이것은 경제구조의 문제와 연결된다. 선비의 신분인 허생이 賤業인 상행위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상행위가 지닌 본질적 성격은 무엇이며, 작가는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려 주려고 했는가를 밝혀내는 일이다.

무일푼이던 허생은 변씨의 만 냥을 빌린 뒤 巧妙한 장사 수완을 발휘하여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이러한 허생의 상행위는 한편으로 그의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一攫千金을 가능케 하는 당시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浮刻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허생의 蓄財는 사들인 물건에 適正한 이윤을 붙여 파는 정상적 상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물화(物貨)의 흐름을 歪曲시켜 단번에 몇 배의 이윤을 남기는 비정상적 상행위, 買占賣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는 배가 외국과 통하지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하여 나라 안 물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독점을 해 버리면 그것은 백성을 해치게 되는 것이며 만약 위정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쓴다면 나라가 크게 병들게 될 것이다."[55]

을 만들어오는 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 시간에 발표를 시켜보았다. 학습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 인물에 적합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재미있고 활기차게 발표를 하였다. 예를 들면, 변씨를 조사한 모둠에서는 변씨가 부자라서 사람을 한 눈에 알아보는 안목을 가졌는가? 처음부터 허생이 돈을 빌려줄 것이라 생각하고 변씨를 찾아갔는가? 어떻게 하면 변씨처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변씨가 아니었으면 허생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까? 등

55) 앞의 책, 국어(하) 75쪽

작가는 당시 유통구조가 지닌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把握하고 있다. 하나는 의도적 조작에 의한 인위적인 유통질서의 歪曲이요,[56] 다른 하나는 운송수단의 미비에서 오는 물화의 정체현상[57]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유통 구조의 취약성[58]을 말한 것으로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한다.

허생의 상행위와 더불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도적교화와 빈민구제 등 그의 사회활동이다. 이것은 경제구조의 矛盾에서 파생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로 보아진다. 허생의 사회활동의 의미는 그가 변산의 群盜들을 찾아가 주고 받는 대화에서 잘 나타난다.

허생이 群盜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천 명이 천 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일 인당 한 냥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논밭은 있소?"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樂)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饒足)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 할 뿐이지요."[59]

---

56) 허생이 처음 안성에서 과일을 都庫하여 다섯 배의 이익을 남긴 것

57) 육지의 물품과 제주도의 말총을 교역하여 큰 이윤을 남긴 것

58) 앞의 책, 국어(하) 77쪽,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을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 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59) 앞의 책, 국어(하), 79쪽~80쪽

여기서 우리는 조선후기 사회가 직면해 있던 가장 심각하고 切迫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最低限度의 인간적 삶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極度의 빈곤이다. 群盜의 출현과 같은 사회 혼란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생존을 위협하는 切迫한 경제적 窮乏에서 파생되기 때문이다. 허생은 도둑들을 양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빈 섬에 들어가 理想鄕을 건설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시험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바로 그 당대의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작가는 허생의 사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빈곤을 조선후기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진단한다. 이 빈곤의 문제만 해결되면 군도의 출현과 같은 모든 사회문제들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정치문제이다. 변씨의 소개로 이완 대장이 허생의 집으로 찾아 와서 나라에서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한다. 허생은 三顧草廬와 같은 인재의 過感한 등용, 명나라에 대한 실질적 배려 및 勳戚輩들에 대한 牽制의 필요성(북벌론인 親明背金정책의 허구성 비판), 청나라와의 인적교류 확대 추진 및 청나라 문명의 적극적 수용의 필요성(國益을 伸張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외교정책 실시) 등의 현실대응책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완대장이 이를 거부하게 되는 과정에서 끝내 실현될 수 없게 되지만 그 시대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정치문제인 것이다.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주제는 表面的인 것과 裏面的인 것으로 크게 나누어서 짐작할 수 있다. 表面的인 주제는 앞에서 제시한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와 사회혼란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 문제의 제시와 그 해결책을 통한 과정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爲政者들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沒落한 사대부지만 도를 추구하는 참다운 선비인 허생이, 무능한 爲政者이며 그릇된 사대부를 대표하고 있는 이완 대장에게 현실대

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잘못과 허위의식을 痛烈하게 고발하고 峻嚴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다.[60]

裏面的인 주제를 논함에 있어서 전제되는 것은 『허생전』이란 작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이며 누구에게 왜 보여주려고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며 또한 그 해답이라는 것이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허생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거침없는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후반부의 정치적인 경륜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허생의 능력은 처음부터가 아닌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어느 한 순간 갖춰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작품의 도입부분에서 허생은 가난하고 초라한 선비로 그려진다. 하지만 그의 처로부터 叱責을 받고 가출을 함으로써 그의 대단한 능력이 발휘된다. 즉, 몰락한 사대부의 신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존재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허생은 보여주고 있다. 장사를 해서 수십 만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병폐의 원인을 정확히 把握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했다. 나라에서도 구제하지 못하는 群盜들을 설득하여 섬으로 데려가 그들을 편안하게 정착시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게 만든다.

작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는 이 작품에서 眞正한 사대부의 표본을 허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즉, 沒落한 사대부면서도 '道'를 좇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잘못된 사회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허생을 강조함으로서 참된 사대부는 굉장한 힘을 가진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려고 함이 아니었을까?

1) 허생의 처가 허생을 비난한 의도는 무엇인가?

---

60) 앞의 책, 국어(하), 90쪽~91쪽

예시답안 →허생으로 하여금 생활현장(경제활동)에 직접 뛰어들게 한다.

2) 허생은 무슨 목적으로 집을 나갔는가?

예시답안 →장사(상행위)를 통한 조그만 시험의 수행 및 경제적 문제 해결

3) 허생이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예시답안 →이상세계의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

4) 허생과 변씨와의 교분은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시답안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대내적 경제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반부와 명분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외적 정치문제를 주된 관심사로 다루고 있는 후반부를 구조적으로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5) 허생이 이완 대장을 門前薄待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시답안 →조정과 신하들에 대한 反感과 不信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완대장은 곧 그들을 대표하는 사대부 계층이기 때문이다.

6) 허생이 이완 대장을 꾸짖은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예시답안 →허생은 空虛한 형식과 명분을 내세우며 실용적 정책 마련과 실천을 等閑視하고 있는 이완대장으로 대표되는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다.

7) 작가가 허생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예시답안 →조선경제의 脆弱性과 서민층의 생활고,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의 무능력과 무기력, 허례허식과 명분주의를 辛辣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제에 관련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내용을 깊이 맛볼 수 있게 되고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다.[61] 그

61) 문학 작품을 포함한 모든 글은 그 안에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문학은 인간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구체

리고 나아가서는 그것의 구체적 의미와 보편적 의미까지도 把握[62]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작가의 상황과 관점[63]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E. 의식의 한계성

이 작품은 당시 집권 사대부들의 偏狹性과 虛僞性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人材登用의 불합리성과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허생전'은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실학 연구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그 시대와 사회가 안고 있었던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脆弱性과 矛盾性을 밝히면서, 실학적인 세계관과 청나라의 실용적 문물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허생에게는 실학사상과 선비정신에 입각한 개혁정신이 充滿되어 있었다. 특히 선비의식은 허생으로 하여금 보다 冷徹한 이성으로써 무장시켰다. 실학사상은 사대부로서도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不條理한 현실 사회에 대한 개혁의 强度를 높였다.

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문학은 허구적 특성을 지니므로 사회·문화적 상황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변형된 형태로 반영한다. 따라서 작품 속에 반영된 상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그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유념해야 한다. 앞의 책, 국어(하), 75쪽

62) 사회·문화적 상황을 문학 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시켜 해석할 때 드러나는 의미를 상황의 구체적 의미라 한다. 이것은 그 작품을 낳게 한 계기이기도 하며, 또 그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핵심적인 고민과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구체적 상황의 의미로부터 특정한 시대와 장소를 넘어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회·문화적 상황의 보편적 의미라 한다. 몇백 년 전의 작품의 가치를 오늘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보편적 의미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앞의 책, 국어(하), 86쪽

63) 작가의 상황이란, 작가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그의 사회적 처지를 말한다. 그리고 관점이란, 작가가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뜻하며, 그의 가치관, 사상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러한 상황과 관점을 把握하면 글의 맥락이나 주제 등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앞의 책, 국어(하), 88쪽

그러나, 그 모든 위대하고 찬란한 허생의 업적과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看過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이중적 才物觀과 階層觀에 근거한 한계성이다. 이것은 또한 작가 박지원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한 것으로서 허생은 자기가 선비 또는 사대부라는 걸 강하게 의식하면서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그의 이중적 才物觀에 의하면, 허생은 재물에 대해 公的이고 사회적인 차원(貧民救濟, 利用厚生, 富國强兵)에서는 긍정적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學問修養, 人格陶冶)에서는 '道'를 해치고 '道'에서 멀어지게 하는[64] 부정적 대상으로 看做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의 이중적 階層觀으로서 허생은 작품 전체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선비 계층에 대해 다분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변씨와의 대화 부분에서는 '장사치'와 '선비'를 명확히 구분하면서[65] 農工商 계층에 대한 士계층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허생은 선비답지 않게 장사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돕는다. 하지만 항상 선비로서 그렇게 하였고 무슨 일을 하든 정신적으로는 한번도 선비의 자리, 양반 사대부라는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는 장사를 하지만 장사꾼을 경멸한다. 백성을 돕고 북벌책 같은 국가 대사를 논하지만 조정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士農工商을 구별하던 당시의 규범, 때가 아니면 초야에 隱遁한다는 선비의 處世觀에 묶여서 거리를 두고 비판하거나 도와주기만 할 뿐,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살고 책임지지는 않았다. 이 점이 허생의 한계이고 또한 『허생전』을 지은 작가 박지원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 사

64) 앞의 책, 국어(하), 83쪽,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오. 만냥이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하겠소?"

65) 앞의 책, 국어(하), 84쪽,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회를 바로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않는다. 양반 계층의 생각, 사대부가 쓰는 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66]에서도 이러한 한계는 분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다. 『허생전』이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씌어진 것도 그런 한계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식에서 비롯된 허생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眞正한 위치와 존재를 把握하기에 이른다. 결국 허생은, 자기의 本然的 문제가 아닌 周邊人으로서의 가난한 백성을 돕기만 하는 존재일 뿐, 고귀하고 근엄한 선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나중에 결말부분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행방을 감춘다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승리의 주체로서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된다는 뜻이 된다. 확고한 이상과 탁월한 능력을 지닌 허생이 그것을 다 실현하지 못한 채 불만스러운 현실과 그 현실을 지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도피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말로 맺어져 결국 그의 한계를 드러내고야 마는 것이다.

4. 평가 단계

첫 번째 학습활동은 허생의 가난한 생활과 아내의 성화에 집을 나와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부분까지이다. 두 번째 부분은 群盜를 끌고 섬에 들어가 무인도를 경영하는 부분과, 변씨와의 교분까지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완과의 만남과 허생의 잠적 부분까지로 나누어서 각 부분이 끝나는 문단 밑에 '혼자하기'와 '함께하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단락의 학습활동 문제는 다음과 같다.[67]

66) 앞의 책, 국어(하), 83쪽, "내가 하루 아침의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읽기를 중도에 폐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 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67) 앞의 책, 국어(하), 77쪽

<혼자하기> 1. 허생에 대한 아내의 말에서 알 수 있는 양반 계층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보자.[68]

예시답안 →1. 정신적 풍요로움만을 지나치게 내세워 생활의 토대가 되는 물질적 조건을 輕視한다.
2.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무능하여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寄生한다.
3. 독서 이외의 다른 생산적인 산업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나 능력이 없다.

<함께하기> 2. 허생의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경제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69]

예시답안 →겨우 만 냥으로 사들인 과일과 網巾 값이 열배로 뛰었다는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의 허약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락의 학습활동 문제는 다음과 같다[70]

<혼자하기> 1. 허생이 群盜를 이끌고 섬에 들어간 행동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창작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말해보자.[71]

예시답안 →허생이 群盜를 이끌고 섬에 들어간 행동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는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 이루어진 세계이며 이러한 理想鄕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

68) 제 7차 고등학교 국어(하) 교사용 지도서의 예시 답안 126쪽, (이하 본고의 학습활동의 답안은 이것을 적용하며 교사용 지도서 쪽수로 기록함)

69) 교사용 지도서, 126쪽

70) 앞의 책, 국어(하), 87쪽

71) 교사용 지도서, 129쪽

(2)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보자.[72]

예시답안 →허생이 이끌고 간 群盜들은 너무나도 가난하여 양민으로서의 평범한 가정생활 조차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허생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나아가 평범한 양민이 도둑이 될 수 밖에 없게 만든 사회 제도를 개혁하려 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허생이 이끈 群盜들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사회에는 없는가? 어느 누구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런 사람들 또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겠다.

<함께하기> 2. 허생과 변씨의 대화를 역할 놀이로 재구성하여 듣고, 글을 읽을 때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토론해 보자.[73]

예시답안 →교수-학습 방안, 대화를 역할 놀이로 재구성할 때 작중 상황이나 인물의 성격, 심리 등을 고려하여 그에 適切한 말투를 구사하고, 대화 내용에 어울리는 몸짓이나 얼굴 표정 등을 곁들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현장에서 이것을 再現해 보았더니 책에서 글로 읽을 때 보다 훨씬 더 현장감과 함께 사실감이 더 해진다는 대답을 들었고 자칫 無味乾燥하고 지루할 수 있는 교과서 학습보다 생생한 느낌이 일어나면서 기억에 남는 역할극이 되었다. 단지 시간상의 제약으로 다 실현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해 보았다.

역할놀이 대본-허생이 변씨에게 돈을 갚아 주는 장면[74]

< 허생 : 나를 알아 보시겠소?

변씨 : (깜짝 놀라며) 그대의 안색이 썩 좋지 않소? 혹시 내게 빌려간 만 냥을 실패 보지 않았소?

허생 : (깔보는 어투로) 재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 얼굴색이

---

72) 교사용 지도서, 129쪽

73) 교사용 지도서, 129쪽

74) 앞의 책, 국어(하), 83쪽

변하는 것은 장사치나 할 일이지, 어찌 만냥이 도를
살찌게 하겠소?
변씨 : (당황하며) 무슨 말씀을 그리하십니까?
허생 : (십만 냥을 던지듯 내놓으며) 내가 하루 아침의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책읽기를 그만 둔 것도 그렇지만, 당신
에게 돈을 빌렸던 것이 참으로 부끄러울 뿐이오.>
<이하 생략>

세 번째 단락의 학습활동의 문제는 아래와 같다.[75]

<혼자하기> 1. 허생과 이완 대장 사이의 대화에 주목하여, 허생이 제기한 세 가지 정책을 이완 대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이유에 대해 말해 보자.[76]

예시답안 →허생은 실리의 차원에서 당시 집권 세력이 추구하던 북벌론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그러나 이완은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당시 사대부들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2.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요구한 세 가지 정책을 정리하여 상소문 형식의 글을 쓰려고 한다. 이런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재조직하여 보자.[77]

예시답안 →허생이 이완에게 요구한 세 가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북벌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첫째, 초야에 묻힌 인재를 과감하게 등용하기 위해 임금이 三顧草廬라도 不辭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둘째, 北伐이 大明을 위한 復讐와 春秋義理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나라에 망명해온 명나라 장졸들에게 왕실의 딸을 시집보내고 고관들의 집을 빼앗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셋째, 眞正으로

75) 앞의 책, 국어(하), 91쪽

76) 교사용 지도서, 132쪽

77) 교사용 지도서, 132쪽

國恥를 씻으려면 적의 허실을 偵探하고 그 곳의 豪傑들과 결탁하기 위해 국중의 자제를 뽑아 辮髮에 胡服을 입혀 청나라에 파견해야 한다.

<함께하기> 3.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기와 작품이 쓰여진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100년 전의 상황을 諷刺한 이 작품이 박지원이 살았던 당시의 상황과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이야기해 보자.[78]

예시답안 →이 작품은 당시 집권 사대부들의 偏狹性과 허위성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인재등용의 불합리성과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벌론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부분은 당시 집권층 정책이 가지는 허구성과 이로 인해 백성들의 실제적 삶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諷刺한 것으로 보인다. 『허생전』은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실학의 연구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그 시대와 사회가 안고 있었던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취약점과 矛盾性을 밝히면서, 실학적인 세계관과 청나라의 실용적 문물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5. 내면화 단계

문학 교육의 최종 단계로서의 내면화는 작품 세계를 독자(수용자) 자신의 삶의 문제로 환원하여 의미화 하는 작업[79]을 말한다. 내면화 과정은 한 현상을 감지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의 모든 행동을 좌우하는 인생관에 이르기까지의 지배적 행동 변용[80]이다.

---

78) 교사용 지도서, 133쪽

79) 교육부, 앞의 책, 367쪽

80) 박인기, 『소설 텍스트 수용의 내면화 구조』(청주교대 논문 29집, 1992), 245쪽

A. 텍스트의 상호성 확대

문학 교육의 발전적 확장 원리는 텍스트 상호성의 원리다.[81]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문학 텍스트와 관련하여 상호성이 높은 여타의 관련 텍스트들을 얼마나 잘 조직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결국 텍스트의 상호성 확대라는 것은, 연관되는 다른 텍스트를 '더 읽을 거리'로 제공해 문학 텍스트 수용의 깊이와 폭을 깊고 넓게 확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소설 텍스트 『허생전』의 상호성 확대를 위해서 다른 작가의 작품이지만 생의 행로는 물론이고 사상 및 문학관에서도 유사점이 많았으며, 작품의 성격 면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았던 『홍길동전』을 '더 읽을거리'로 제공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독서 경험을 좀 더 확충해 보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에게 『문학(상)교과서』[82]에 수록된 『홍길동전』을 읽게 하고 PPT로 구성하여 화면을 띄워서 물음에 대답할 수 있게 하였다.

<PPT 자료>의 제시

1) 『허생전』과 『홍길동전』에서 추구한 理想鄕의 모습은?
2) 『허생전』과 『홍길동전』의 공통된 주제는 무엇인가?
3) 『허생전』과 『홍길동전』의 문학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4) 『홍길동전』의 '홍길동'과 『허생전』의 '허생'의 차이는 무엇인가?
5) 『홍길동전』은 어떤 점에서 영웅소설의 서사구조라고 할 수 있는가?
6) 『홍길동전』의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떠한가?

---

81)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386쪽

82) 우한용 외, 문학(상), (주) 두산, 2003 이 교과서는 논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테크노 과학 고등학교에서 교수-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주교재로 문학 교과서이다.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묻고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창조적인 생각으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6명 (각 모둠의 대표 1명씩)을 선정하여 각각 발표를 통해 대답을 하게 한 후, 정리를 한다.

<표 8> 『홍길동전』과 『허생전』에 나타난 理想鄕의 모습

홍길동전 '율도국'	허생전 '빈 섬'
道不拾遺와 山無盜賊의 세계	아름답고 풍족한 자연적 무인도
수천리의 天府之國	천리가 못되는 땅이지만 비옥한 곳
시련을 겪고 획득하는 공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획득하는 공간
정치적·경제적으로 이상화된 추상적 낙원	공동 생산, 해외 무역, 예의 범절에 기반한 구체적 理想鄕
죽을 때까지의 최후의 공간	큰 문제 해결에 앞서 중간시험 과정의 성격을 가진 經綸의 시험장

먼저, 1모둠은 1)에 대한 답으로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홍길동전』의 理想鄕은 임금이 덕으로 백성을 통치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나, 유교의 왕도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하여, 『허생전』의 그것은 현실 세계와 구별되는 공간으로서 허생이 꿈꾸고 있는 이상을 시험할 수 있는 일종의 시험 공간의 역할을 했다고 정리해 보았다.

2모둠의 2)에 대한 답으로는, 두 작품의 공통된 주제는 현실에 대한 비판, 사회의 개혁, 새로운 이상국의 건설 등이었다. 홍길동이 서자로 태어나서 嫡庶差別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듯이, 허생은 沒落한 사대부로서 참된 사대부가 가야 할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다고 정리를 해 보았다.

3모둠의 3)에 대한 답으로는, 『홍길동전』의 문학사적 의의가 영웅소설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최초의 국문소설이라는 것인데 비해 『허생전』

은 실학사상으로 당시 사회의 矛盾을 諷刺하고 비판하면서 근대의식을 鼓吹한 실학 문학에서 그 문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4모둠의 4)에 대한 답으로는, 『홍길동전』의 '홍길동'이 庶子출신의 천한 신분인데 반해 『허생전』의 '허생'은 비록 몰락한 양반이지만 그래도 양반계층의 사대부 출신이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비슷한 것은 서로가 사회적으로 不遇한 계층이기 때문이다.

5모둠의 5)에 대한 답으로는, 주인공인 '홍길동'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근거지를 떠나게 되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또한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한다는 점 등에서 영웅의 일대기를 보여준다. 홍길동은 군사력으로 율도국을 공격하여 율도국 왕과 직접 싸워 승리한 후 그 왕이 죽자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내준다. 그것에 감동을 한 백성들의 항복으로 율도국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鎭撫하여 그들의 호응을 얻는다.

6모둠의 6)에 대한 답으로, '길동'은 서자로 태어나서 자기 집안에서 賤待를 받는다. 그리고 미천하면서도 비범한 아이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자객에게 암살될 뻔했다. 자객을 죽이고 집을 나가 첫 번째의 위기를 해결했지만, 도적의 무리를 만나 두목이 되고 스스로 活貧黨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다가 의롭지 못한 재물을 탈취하던 중 나라에서 잡아 죽이려 하는 두 번째의 위기를 만난다. 그러자 자기 도술은 아무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가로 아버지가 자식으로 인정하게 된다. 임금이 이조판서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한 다음,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나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妖怪와 싸워 이기고, 율도국이라는 섬나라를 차지해 왕이 되는 것으로 공상적인 차원에서의 승리를 마음껏 이룩하는 행복한 결말에 다다르게 된다. 하지만 앞의 두 단계에서 제기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맞서서 싸우는 상대는 홍길동을 당해 내지 못하지만, 그 배후에 있

는 사회적인 장벽은 쉽사리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B.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1) 모둠편성 : 학교 상황에 맞게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며 편성이 되면 개성 있는 모둠의 이름을 정하여 일체감을 높인다.

2) 노래 가사 만들기 : 바탕 노래는 모둠원 들의 결정에 따라 좋아하는 노래나, 부르기 편안한 노래를 선정하도록 한다.

3) 소요 시간 : 1시간 정도 필요하며 1시간 안에 노래가 만들어지지 못한 모둠은 과제 학습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노래 부르기 및 녹음 : 다음 시간에 모둠 노래 부르기 시간을 부여한다. 모둠원의 녹음 시간이 5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전체 모둠의 녹음을 내고 학급 전체가 다시 한 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30분 정도 준다.

5) 주의 사항 :

(1) 교사가 너무 지나치게 介入하면 분위기가 硬直되어 자유스럽지 못하게 된다.

(2) 교사는 騷亂스럽게 행동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통제만 하고 그 밖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살릴 수 있도록 한다.

(3) 교사는 노래 부르기를 할 때 가사를 제공하는 분야를 열어두고 필요한 부분을 검색해 주면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다.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1학년 웹프로그래밍 과 2 반 들꽃 모둠 (모둠원 :보윤,혜영,보형,유미)

■ 국어 (상,하)중 대단원 :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소단원 : (2) 허생전

<표 9> <황홀한 고백>의 노래 가사 바꿈

<원래 가사>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네온이 불타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 지금은 무엇을 할까 생각에 잠기면 하염없이 그리워지네 불타는 눈동자 목마른 그 입술 별들도 잠이 들어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황홀한 그 한마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곁에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거야 <반복>	묵적골 사는 허생이/한평생 책만 읽다가 부인에게 바가지 긁혀서 대문을 박차고 나와 부자인 변씨 찾아 당당히 만 냥 빌렸네 그 만 냥 가지고 전국을 휩쓸어 다시 팔아 돈 벌고/변산의 군도들 데리고 섬에 가/새나라 만들었네 오십만냥 내던지고 그래도 남은 십만냥 변씨에게 다 갖다 주어 버렸네(1절)

C. 만화로 재구성하기

1) 모둠편성 : 모둠은 노래 부르기 모둠을 그대로 구성하면 무난하다. (한 모둠을 내용 구성 팀과 만화 그리기 팀으로 나누어도 좋다)

2) 내용 구성

(1) 내용은 교과서 순서에 의해서 구성한다.

(2) 『허생전』은 문학이므로 줄거리 위주로 구성한다.

(3) 모둠원 전체가 모아서 협동학습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4) 만화그리기 팀과 공통으로 30분간 한다

3) 만화 그리기 (내용구성 팀과 공통으로 30분간 한다)

(1) 만화는 공동 작업으로 그리도록 유도한다.

(2) 그림에 재능(흥미)이 없는 아이들은 채색작업을 하게하고, 내용을 다듬는 모둠이 함께 참여하면 흥미를 느낄 수 있다.

4) 발표 및 보여주기 (15분)

(1) 스캔 작업을 통해 보여주기를 한다.

(2) 학급에서 스캔 작업이 어려우면 실물 화상기를 통해 모니터로 보여주면서 모둠 장(아니면 돌아가면서)이 발표를 한다.

5) 평가 : 상대 평가지를 통해서 상호 평가하게 한다.

<만화나 그림으로 만들기>

1학년 웹프로그래밍 과 2반 멋쟁이 모둠 (모둠원 : 은경, 은희, 현정, 선재)
■ 국어(하) 대단원 :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소단원 : (2) 허생전

<표 9> 만화로 재구성한 단원의 내용

만 화 (그 림)	내 용 (줄 거 리)
	허생이 무능력하게 글 읽기만 하다가 아내의 하소연으로 가출을 한다.

	부자인 변씨에게 만 냥을 빌려서 매점매석으로 큰 이익을 남겨 변산 群盜의 무리를 이끌고 무인도를 경영하여 성공을 거두고 다시 돌아온다
	허생이 변씨의 돈을 갚고 허생의 돈을 번 내력을 들은 변씨와 친해진다.(허생의 운명관과 현실관이 나타난다)
	변씨가 허생과 이완의 만남을 周旋하고 허생이 세 가지 계책을 제시하지만 이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사대부를 비판하며 이완을 크게 꾸짖고 칼을 찾아서 찌르려 하나 그는 도망가고 다음날 이완이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D. 독후감상문 쓰기[83]

독후감상문 쓰기 과정은 내적 사유 과정이고 자기 정리 단계에 해당하며 내면화를 적극적으로 돕는 방법이기도 하다. 교수-학습 후 학습자들에게 작품을 감상한 느낌을 글로 써 보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작품 감상 후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다시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또한 작품을

83)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독후감상문을 국어과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꼼꼼하게 정독하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고전소설 수업현장에서 이러한 독후감상문 쓰기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학습자들의 독서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허생전은 연암 박지원의 작품으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비판의식과 개혁정신이 잘 나타난 고전이다. 허생이라는 몰락한 양반이 어느 날 아내의 질책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오게 된다. 변씨라는 마음씨 좋고 대범한 부자에게 돈 만 냥을 빌려서 비록 옳지 못한 방법이지만(매점매석) 큰 돈을 벌게 된다. 억울하게 도둑이 된 양민들을 빈 섬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고 섬을 나와서는 나라 안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 힘쓸 때는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비록 몰락하고 무능했던 양반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고야 마는 그의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 마치 모든 일을 척척 알아서 처리하는 수퍼맨이나 멕가이버 닮았다고나 할까?

허생이 시험한 것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한 말 중에 돈 만 냥으로 나라의 경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당시의 경제구조의 보잘 것 없음에 마음이 안타까웠다. 이젠 우리나라도 경제대국의 대열에 들어서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다.

그리고 허생은 돈 오십만 냥을 버릴 때는 그의 큰 뜻에도 불구하고 아까웠다. 내가 가질 수 없다 해도 우리 주위의 불우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안타깝게 바다 속으로 버려진 것이 두고 두고 아까웠다.

북벌론에 대한 답을 찾던 이완대장에게 현실대응책 세 가지를 제시하지만 무능한 집정자인 이완이 그것을 거부할 때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다. 명분과 체면뿐인 '북벌론'에 대해 허생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호통을 칠 때는 차라리 후련하기조차 하면서 이 작품을 쓴 박지원이란 분이 굉장히 위대하게 여겨졌다.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명쾌한 비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새삼 존경스러워졌다.

허생의 칼을 피해 도망을 간 이완대장이 다음날 허생을 다시 찾아 왔을 때는 그는 이미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왜 사라졌을까? 현실을 개혁하고 타파하기에는 현실의 짐이 너무 무거웠던 것일까? 그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좀 더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더라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이

아니었을까?

<허생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올곧고 불의에 고개 숙이지 않으며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정신은 참다운 삶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믿는다.

위 작품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 테크노 과학 고등학교 일학년 학생의 독후감상문이다. 이 학생은 도서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글을 쓰는 것을 즐겨한다. 여기에 소개한 것은 비교적 잘된 글이라 판단하고 인용하였다. 단지 어떤 줄거리의 나열이 아니라 자신이 느낀 감상위주의 글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본적이고 추상적인 사상과 주제정신을 구체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으로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전이고 이것은 문학 교육의 최종단계인 내면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Ⅳ. 결론

인간성 회복과 조화로운 사회의 확립은 어느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지상과제가 되었다.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은 이런 것을 指向點으로 삼아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이 문학교육은 이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고전문학 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우리 민족 문학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조상들의 문학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문학의 창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설교육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소설에 대한 이론이나 단편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작품을 맛보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중심이 되는 학습자 중심 학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현대소설보다도 고전소설에서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즉, 고전소설 교육은 어학적인 면의 명확한 註釋을 필요로 하되, 단지 그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더 나아가 고전소설이라는 하나의 문학작품에 대한 참다운 이해력과 감상력을 기를 수 있고 풍부한 상상력을 涵養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전소설과 현대소설과의 연결성을 緊密하게 把握할 수 있도록 폭넓고 다양하게 문학적인 면을 강조하여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학습자들이 문학적 상상력을 나름으로 펼쳐서 미적 감각과 풍부한 감수성을 高揚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문학교육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문학교육은 학습자의 문학적 재구성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현장에서의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문학교육은 결코 쉽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습자의 지적능력의 수준, 교수-학습시간과 학습 진도의 조화, 대입 수학능력 고사의 출제傾向,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교수-학습에 대한 지적 탐구와 다양한 방법의 모색에 대한 고심, 학습자들에 透徹한 사명감의 여부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84] 그리고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85]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교육 정책의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만이 이상의 여러 과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전소설 교육의 현실과 전망을 위해 먼저,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와 목표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제 7차 교육과정의 구성과 문제점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반성하면서 바람직한 고전소설 교육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그 대상으로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하)에 실린 『허생전』을 중심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문학 텍스트를 감상하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문학 교육을 실제 문학의 교수-학습의 현장에서 실시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문학 교육의 한 방법을 실현'해 보려고 하였다.

『허생전』은 박지원이 1780년 중국의 연경을 돌아보고 쓴 기행문인 「열하일기」에 실린 한문단편 소설로 조선후기 사회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잘

---

84) 현재 학급당 인원수는 35명 정도이고 교육부는 2008년도까지 점차적으로 30명까지 줄여나가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85)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위한 '직업탐구'과목의 신설과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입학 정원의 3%를 부여하고 있다.

표현된 작품이다. 현실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삶의 방식이 변함은 물론이고 가치관도 변하게 마련이다. 이 소설은 이러한 당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변화, 작가의 현실 문제 해결방식 등을 살펴보기에 적절하다. 또한 작품 안에 북벌론, 상업경제사상, 북학사상 등 여러 가지 작가의 사상이 형상화되어 있고, 지식인의 실천 문제와 같이 현재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86)

『허생전』 수업의 실제에서 「계획→지도→평가→내면화」의 4단계로 특징화하여 교수-학습 절차 모형을 제시하였다. 계획단계에서는 교수-학습 목표의 설정과 사전지식의 학습을 먼저 先行하게 하였다. 국문학의 개념과 고전소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허생전』의 주제정신의 根幹이 되는 박지원의 문학관과 그의 실학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利用厚生 철학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시 학습에서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줄거리 잡기를 통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그런 다음 작품 구조의 의미를 통해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새롭게 조명해 보면서 '인물'이라는 장치가 작품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역사적 삶과 緊密하게 결부되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주제의 구현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 창의적인 질문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편 작가인 燕巖의 한계이기도 한 작품의 한계성을 허생의 이중적 才物觀과 階層觀에 근거하여 살펴보면서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허생전』에서 허생이 모색한 새로운 삶의 방향과 가치, 즉 부정한 권력에 대항한 批判과 諷刺, 허례허식에 대한 거부는 다른 어떤 고전소설 보다 오늘의 현실에 의미 있는 일이 된다. 따라서 이런 가치 있는 작품을 학습

86) 우쾌재, 김광순 외 『한국 고소설론』 (아세아문화사, 1991), 296쪽

자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오늘을 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하여 자아실현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허생전』을 비롯한 고전소설을 교수-학습할 때, 訓詁註釋에 치우친 지식 위주의 일방적인 교사 중심의 문학 교육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이 될 때 그들의 문학적 상상력과 미적 감수성은 擴充될 것이고 나아가 문화가 高揚되어 바람직한 인간형성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문학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에 잘 부합하는 문학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에 있는 우리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사들의 올바른 교육을 해야겠다는 透徹한 使命感과 학습자들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훌륭한 교육도 이 땅위에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參考 文獻】

.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상),(하),(두산, 2004. 3)

.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교사용 지도서 (상),(하),(두산, 2004. 3)

.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국어,(교육부, 2001년 1월)

. 제 7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따른 참고서(한샘, 하이라이트)

. 중학교 국사 (하) 교과서(교육인적 자원부, 2004. 3. 1)

. 중학교 국어 1-1에서 3-2 교과서

. 제 7차 중학교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교육 인적 자원부, 2004. 3)

. 우한용 외, 문학 교과서(상),(하),(두산, 2003. 3)

. _____ 외, 문학교사용 지도서 (상),(하),(두산, 2003. 3)

. 박인기, 『소설 텍스트 수용의 내면화 구조』(청주교대 논문집, 29집, 1999)

. 이원수, 『고전소설 작품세계의 실상』(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2)

. 조동일, 『한국문학 사상사 시론』(서울,지식산업사, 1978)

. 조윤제, 『문학 개설』(동국문화사, 1959)

. 이응백, 『국어과 교육』(능력개발사, 1975)

. 박기석, 『박지원 문학 연구』(삼지원, 서울, 1984)

. 박지원, 『燕巖集』, 권1,「楚亭集序」,(경희출판사, 영인본, 1996)

. _____ , 『燕巖集』, 권3, 「孔雀館文稿自序」,(경희출판사, 영인본, 1996)

. _____ , 『燕巖集』, 권1,「騷壇赤幟引」,(경희출판사, 영인본, 1996)

. _____ , 『燕巖集』, 권2, 「答南直閣公轍書」,(경희출판사, 영인본, 1996)

. 조명덕, 「고등학교 고전소설 지도에 관한 연구」(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위논문집,1987)

. 김일렬, 「고전소설에 나타난 교육비판의식」(경북대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경북어문학회 1993)

. _____ , 「고전소설론 토론식 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인문대 국어국문학

과, 경북어문학회 2001)
. 장윤희, 「국어사 지식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한국국어교육 연구회, 2001)
. 이상익, 「고전문학교육의 회고와 전망(1)」(한국 교육개발원, 1986)
. 염은열, 「고전문학교육과 신화적 상상력」(인천교육대학교, 1983)
. 지윤경, 「중학교 고전소설 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박영주, 「고전문학 교육의 현실과 전망」(강릉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인문학보, 1991)
. 서경아, 「창조적 발문을 통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허생전'의 인물을 중심으로」(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정성란,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연구-고등학교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김은아, 「고전문학에서의 수행평가 모형연구-고등학교 국어(상)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장은아, 「한국 고전문학 교육연구-현행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김혜향,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연구-교과서 작품 수록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김정문, 「허생전 지도 실제」(배달말 15집, 배달말학회, 1990)
. 허영무, 「허생전 연구」(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한기영, 「허생전 소고-풍자성과 연암의 사상적 단면」(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이상옥, 「허생전 연구-그 이면 사상을 중심으로」(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옥정윤, 「허생전의 교육방법 연구-수용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1999)
. 유영태, 「허생전의 갈등양상 고찰」(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김상근, 「허생전 연구」(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류문정, 「허생전의 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 김효익, 「허생전을 통해서 본 연암의 잔반관(殘班觀) 고찰」(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노선미, 「홍길동전과 허생전의 비교 연구」(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위논문, 1989)
. 정유선, 「연암의 사물인식과 풍자성」(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김태기, 「소설 지도의 방법 연구」(모국어 교육 제 1집, 모국어 교육학회, 1983)
. 김혜경,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 연구」(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1)
. 우쾌제, 김광순 외 『한국 고소설론』(아세아문화사, 1991)
. 최시한,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문학과 지성사, 1996)
. 전국 국어 교사 모임, 『함께 여는 국어교육』(2004년 봄호, 통권 59호)
. 전국 국어 교사 모임, 『함께 여는 국어교육』(2003년 겨울호, 통권 58호)
. 내사랑 국어 2004, CD판, 7차(7차 국정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 과정(교육과정과 관련한 내용), 연수자료(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 국어 교사모임 연수 자료집)